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Paul H. Shin Publisher  
Kun H. Park Editor  
Phone: (206) 362 - 4500

# 한인회보

##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A Fisherman and Woodcutter  
by Yi Myong-uk (17th Century)

### — 목 차 —

- \* 『권두언』 우리의 긍지를 찾자
- \* 『한국의밤』 행사를 마치고 / 사진화보
- \* 워싱턴주 동포들에게 보내는  
류병현대사의 메시지
- \* 『호소문』 한인회관 건립을 위하여 이동립
- \* 『논 단』 미국사회와 한인학교 오제희
- \* 『논 단』 한인회 무용론에 대하여 박건홍
- \* 『자유기고』 회의진행법에 관하여 한만섭
- \* 『생활정보』 골동품의 기초상식과 곽상영
- \* 『수상』 사랑하는 젊음이 들에게 Paul S. Piek
- \* 김급동의 (Ⅲ)
- \* English Pages : Observing KOREA DAY  
Proclamations of KOREA DAY  
Community Bulletin  
Mother - Daughter Dialogue (Poem)
- \* Rebuttal to T N T Reports : "Korean Influence"

# 5 May

고향에서 옮겨온 맛



한국의 정취를 살리며  
아담하게 단장된  
한국식당

한일각

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 206 ) 587 - 0464 • 0465

『권두언』

우리의 긍지를 찾자!



4월 23일 워싱턴주 정부와 시애틀시가 선포한 KOREA DAY는 이곳 미국 사회가 3만명을 헤아리는 우리 한인교포 사회의 존재와 역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우의 표시였다. 그날밤 이 '코리아 데이'를 기념하는 한국의 밤에 연희장을 꽉 메운 700여명의 한.미 커뮤니티 내객들은 모두 한인교포 사회의 무게를 느끼며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것에 찬사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국의 밤」 행사는 우리 교민사회가 부족한 가운데서나마 머리와 재능을 짜내어서 만든 그야말로 순수한 우리능력의 표현이었다. 그곳에 참석했던 우리 교민들은 한결같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느꼈다고 솔직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새롭게 긍지를 일깨워 주는 날이기도 했다.

\* \* \*

이민자로서 우리는 긍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때가 많다. 영어를 못하고, 미국 사회도 잘 모르고, 때로는 약자에게 쏠리는 눈총을 의식하며 자신에 대한 한탄을 하기도 한다. 거기다가 「박 동선 사건」이니 「통일고 침입」이니를 외치며 미국 언론이 법석을 떨때 이유없이 어깨에 힘이 빠지고 "한국은 독재국가"라는 아우성을 들으면 마치 공범자처럼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 하곤 한다. 미주 여러곳에서 벌어지는 "한국인의 추태"를 신문에 실고 너, 나를 막론하고 우리는 "별수 없는 업전"이라고 자학하는 때도 한 두번이 아니다. 이민생활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련하게 나다 하고 어깨를 떠 볼때가 별로 없는것 같다.

우리를 이처럼 끊임없이 억누르는 압박이 어디서 오는가?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 새 삶을 찾겠다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도전자로서 받게되는 숙명적인 압박이 있다. 이런 압박은 과거 어느 때를 막론하고 개척자에게는 늘 따라 다녔다. 또한 이 땅을 먼저 개척한 주인들의 "뒷세"가 주는 위압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땅을 먼저 차지한 사람들은 그런 행세를 부리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난관을 극복하는 데는 우리가 빨리 자리를 잡고 뒷세를 면할 때까지 끈기과 인내로 땅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런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무거운 압박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나 생각된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과거, 정치·문화적 유산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자기부정에 빠져왔다. 이조의 "사색당파"에서 "남북분단", "군사독재"에 이르기 까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우리의 과거를 지배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쩔수 없이 분열, 상쟁, 횡포의 악습에 젖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이 모든 과거를 털어 버리고 새 출발하겠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 땅에 왔는데, 도처에 세운 "코리아 타운"에 또마시 너무나 많은 한인회분규, 법정싸움, 친·반정부파 대결등이 고 민사회에 표출되고 있음을 볼때, 이래보나 저래보나 단결할수 없는 민족이라고 자포자기 해 버리고 "코리아"임을 감추려 든다.

\* \* \*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자기경멸의 정신적 압박에서 먼저 벗어나야 할 것 같다. 분열현상이 주는 강박관념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분열이란 단결하려는 노력이 실패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패에 좌절만 할것이 아니라 어딘가 단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가 있는지 돌이켜 보고 실패를 막기위한 더 큰 노력을 해박야 되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 그럴려면 우리는 먼저 공동사회의 일에 방관자적 회치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노력이 앞서야 하겠다. 한민사회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마치 무대외에선 배우들처럼 구경이나 하고 웃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들이 올음은 것이라면 함께 참여해서 돕고 밀어주면서 우리가 단합할수 있는 임이얼마나 큰가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주변에 아무리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다 하더라도 나도 그속에 끼었던 한 사람으로 느끼고 남 얘기가 아닌 바로 내 얘기로 생각하면서 나 부터가 앞장서서 잘 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내가 방관자로만 남아 있을때 한탄이나 자학 또는 비판은 무의미한 무늬이 될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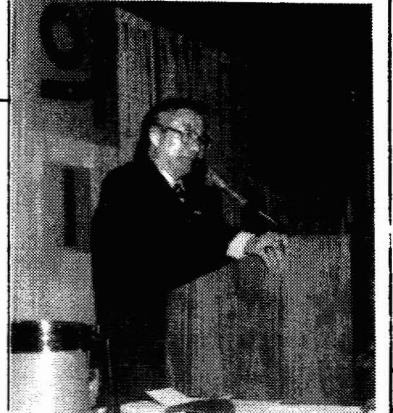
올해 한국의 날 행사는 부족한 데도 많았 겠지만 많은 고포들이 참여하고 뜻을 같이 하여 성공시킨 조그만 예이다. 앞으로 더 노력하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보람을 느끼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겠다. 노력하면서 긍지를 찾자.

( K P )

## 『한국의 밤』 행사를 마치고

한인회장 신 호 범

고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한국의 날 행사를 무사히 끝내고 먼저 이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한인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밤 만찬회장엔 나오신 700여명의 한·미 커뮤니티 내외들과 귀빈 내외분, 이 문수 총영사 내외분 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한국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음악, 무용, 무술등의 재능을 훌륭하게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특히 일일이 감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전궁중 무용 프로그램 을 마련해주신 인희 르베드엘 선생님과 제자들 - 진 르베드엘, 미셸 프랑켄, 크리스타 넬슨, 힐리 볼림 백, 민숙 무용단을 지도해주신 조 경희 선생님과 그 제자들 - 허 경아, 허 정, 사는 김, 백 동하, 진 김, 조 송아, 독창을 해주신 박 창훈씨와 오 회원씨 미국 가악 애국가를 불러주신 김 필순씨, 한국해군도 무술 시범팀을 지도해주신 윤 학덕 사범과 그 제자들 스티브 울드윈, 상명 남인, 도나 카펜터, 스티브 안, 박 민, 그리고 안숙하게 한국, 미국 가국을 합창해주신 여성은주 한국음악인 동우회 회원 김 선인, 김 미경, 오 경아, 김 화용, 박 창훈, 김 용해, 오 예원, 이 용해, 정 매인, 이 예희, 김 필순, 이 희 경씨와 합창 지휘자 은 한복 선생님, 그리고 이 연 에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서 훌륭하게 사회해주신 낸한 씨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사의 경비 지출을 돕기위 해서 귀중한 돈을 기증해주신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수많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 조직하는데 참여해주신 한인회 이사장 이하 전 이사진, 한국의 밤 행사 준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로 피곤을 무릅쓰고 해주신 한인회 임원들께 뜨거운 감사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3부 사교와 춤시간에 감동적인 음악으로 잔치를 이끌어 주신 장미원 정 창근씨 밴드, 전기밴드 무대장치를 맡아주신 김 종택씨, 한국의 밤 표시판제작을 맡아 주신 박 호철, 광 상영, 배 동환씨 또한 입구에서 손님 안내를 맡아 주신 U.W. 여학생들 모두께 그 계속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밤 만찬회장엔 귀빈으로 오시어 훌륭한 인사말씀과 연설을 해주신 김 경원 주유엔 한국대사, 존스펜만 워싱턴 주지사 내외분, 이 문수 주시예를 총영사 내외분, 제넷 윌리엄 시애틀시의회 회장 내외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빈들 모두께서 해주신 경말 알차고 다정스러운 말씀은 그날 한국의 밤 에 시종 따뜻하고 우정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부족한점 또한 실수 한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소 관계로 표가 매진되어 행사에 참석하시지 못한 국민들께 사과 드립니다. 또 참석하신분들도 좌석이 불편했고, 명찰준비도 차질이 있었고, 언어 소통에도 다소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또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외국 손님들 많이 치루다 보니 우리 한국식구들에게 상의를 다 베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미진한 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밤』 행사는 대성공이 있으며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첫째 :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고포사회를 미국 사회에 멋있게 소개할수 있었던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행사는 아직까지 한인단체마련가 한인 커뮤니티를 모르는 미국사회인사들에게 우리들 소개하여, 우리의 인생관, 생활방식 또한 장대성을 알리며, 또 우리의 우정을 베풀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행사후 많은 미국분들께서 감사의 뜻을 표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주지사께서는 "많은 행사를 참석하였지만 이 행사가 제일 곱은하며 임숙하게 나를 감동시켰다"라고 말씀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까지 한인사회나 단체를 몰랐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한국인들과 좋은 우정을 나눌수 있게 되었다." 또 어느분들은 "한국인들은 겸손하고 감사를 느끼고, 먼저 우리에게 우정을 베풀어주니, 먼저 대접못하여 미안하다"라고 까지 인사로 답례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감사의 뜻을 포함수 있었습니다. 금년이 한국동탄 유년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대표들을 초대하여 우리나라를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 하였습니다. 또 많은 미국인들께서 한국전쟁으로 생긴 고아들을 양자하여 따뜻한 사랑과 도움으로 길러주신 많은 양부모님들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 워싱턴주에 각 기관, 정부, 사회, 직장, 교육, 사업단체 대표들 앞에 우리 고포

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국에서 이민생활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도움을 감사 안할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느끼는 사회가 되면 우리 후배, 후손들에게 결과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의 날 행사가 끝난후, 어느 한국분이 저에게 "오늘 나는 한국사람으로 태어난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국사람이라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민생활을 오래하지만 우리 한국의 문화는 잊지못하며, 날이 갈수록 한국의 전통을 점점더 자랑하게 됩니다. 나이가 작고 근사적으로 약하고 지리적으로 강대국에 끼어 있어 고통도 많았지만 우리 선조님들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뚜렷히 지켜왔습니다.

도덕적인 사회, 가족적인 사회, 교육적인 사회, 값있는 문화와 전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역사는 비록 짧지만 지금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성공률이 중국사회, 일본사회보다 월등하며 미국사회에도 뚜렷히 진출,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생활력도 우수합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에게서 받은 하나의 자랑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사회의 부끄러움을 없습니다. 또 우리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 사과할것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나라나 장점,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도 또 아국도 물론 있는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민생활을 결심하고 미국에 있는한 저는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후손들은 우리의 결정의 결과도 대다수는 미국이 자

가 집이되며 고향이 될것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우리 문화정신을 남겨주어야 미국에서 뚜렷한 한 미국인이 되는것입니다. 미국문화만을 좇다하고 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정신적인 불구자가 될것입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의 기초를 가르쳐주고 닦아 줌으로써 좀더 두 문화의 유산을 겸비한 인간이 되는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선조들에게서 배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어른을 존경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도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바탕외에서 미국사회에서 미국문화의 장점을 터득하면 우리들의 이민생활은 가치를 갖게되며 보람을 날게 될것입니다.

우리 한인회는 아직도 작고, 아직도 약하고, 아직도 부족한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래를 위하여서나 후손들에게 기초를 닦아주기 위하여서는 한인회가 하고있는것같은 단체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인회 간부들은 한본도 빠지지 않고 개인 직장 생활에 바쁘고 다른 많은 할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시간을 짜내어 성심성의껏 한인회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밤 행사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것같이 계속하여 도와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심으로서 한인회가 희망을 가지고 크게 발전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따뜻한 충고와 조언을 주시면 더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훌륭한 한인사회를 만드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한국의 밤』 대성황

## -한인 커뮤니티의 저력, 이미지 크게높혀-

4월 23일 시애틀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한인회 주최 한국의 밤 행사는 700여명의 한.미 커뮤니티 내외이 초반원을 이룬가운데 이 지역 한.미 사회 우호 증진에 일대 전기를 이루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행사는 같은날 와싱턴 주정부와 시애틀 시가 선포한 코리아 데이 를 기념하고 미국사회에 한인 커뮤니티의 이미지를 높이며, 한.미 커뮤니티간의 친선과 우호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가 특별히 마련했다.이 행사에는 김 경원 주유엔 한국 대사, 존 스펠만 워싱턴 주지사, 이문수 총영사, 제 넷트 윌리엄스 시애틀 시의회위원장, 긴 간난 여사등의 주빈과 워싱턴주 및 연방정부의 정치, 사회, 교육, 문화, 경제, 군부등 미국사회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약 300명의 인사들과 한인교포 약 400명이 시애틀 트레이드 센터 연회장을 메웠다.

이날 오후 6시 부터 시작된 이행사는 약 1시간동안의 각예일 리셉션으로 시작되어 7시부터 만찬에 들어갔다. 만찬이 끝난후 신 호범 한인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빈 소개와 인사말에서 주빈들은 한결같이 시애틀 지역 한인사회의 발전을 축하하고 한인들의 비중이 미국사회에 점차 무거워가고 있음을 사인했으며,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사회발전에 커다란 구실을 할수있을것을 기대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였다.

8시 30분 부터 약 2시간 동안 계속된 제 2부 행사는 한국의 전통적인 고전 및 민속 무용과 음악 합창, 독창, 예견도 시범등 연예 프로그램으로 엮어졌는데 각 손서마다 출연자들의 재능과 연기에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 프로그램은 순수한 시애틀 지역 고민들의 힘으로 짜여진것으로 그 몹시가 건본연예인들의 농속도에 못지 않다는 호평을 받음으로서 한인교포사회의 숨은 저력을 과시했다. 약 10시 부터 시작된 제 3부 사고와 춤의 시간에는 늦게까지 남은 참석자들이 은은한 밴드와 가수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자정이 넘도록 오랫동안 향수에 젖은 시간을 즐겼다.

이날 행사에 초대된 미국사회인사들 가운데 한국 참견용사와 한국 아동양부모들도 많았는데 신 회장은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이들이 인간애를 발휘하여 아국의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아국의 아동을 미국에 데려와 훌륭히 길러주어서 한국과 미국간의 동지적, 인간적 우의와 유대를 굳히는데 무엇보다도 큰 몫을 하여 준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 하였다.

4월 23일을 워싱턴주에 "한국의 날"을 선포한 스펠

만 주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101주년을 맞는 한미관계의 연조가 1889년에 탄생된 워싱턴주의 역사보다 더 길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재작년 최초의 아세아 방문중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인들이 이룩한 놀라운 근대화 작업에 경탄했으며, 한국의 건박한 안보문제, 미국의 대한 방위책임의 중요성을 실제로 체험했다고 술회했다. 스펠만지사는 특히 한국과 한국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워싱턴주와의 교역이 양자의 경제관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3, 4년 후에는 현재의 수배로 무역량이 증대할것이며, 미국의 서북미는 그 미래의 향방이 지금세계의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한국을 워싱턴 대평양 연안지역 국가들과 수명적인 연관성을 가지고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세계무대에 약진하고있는 한인들이 미국에와 워싱턴주에 현재 3만명 이상이 살고있으면서 각 분야에 걸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것은 워싱턴 주의 발전에 큰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김 경원 주유엔 한국대사는 1세기를 기록한 한.미 관계의 역사를 회고할때 양국은 서로 떨어질수없는 불가분의 유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로 미국은 한미수교후 일찍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개인, 선교사, 교육자, 외교관, 사업가들을 한국보내 한국인들의 정신적 성장에 저울수없는 깊은 자국을 남기고 세계의 어떤 다른 두나라사이에서도 찾아볼수없는 인간적 관계를 형성해왔던 사실을 들었다. 김대사는 또한 한국과 미국은 가장 자연스럽고 고유한 구조적 상호보완의 경제, 무역관계에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 예로 미국 경제자원중 농업, 자연, 기술 및 재정자원은 바로 한국에 결집된 가장실질한 요소로 미국이 이를 조달하고 활력제로 사용케하여 한국의 경제비약은 이룩할때 미국과는 결코 경쟁적관계가 아닌 다른나라와는 뉘낄수 없는 수혜적 관계로 귀착될것임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대평양 연안지역이 점차로 중요시 되는 이 시점에서 100년의 우정에 기대를둔 한.미 경제협력이 양국간에 절실히 필요함을 말했다. 이어 이문수 총영사는 류 병현 주미한국대사로 부러워 한국의 날 선포 축사를 대독하고, "한국의 날"은 한국의 일, 민족적 긍지, 동포애를 되새기는 날로 작년 100주년을 맞는 한미관계가 정치, 경제적으로 결속되었고 워싱턴주에 날로 신장되고있는 3만여의 한인교포사회가 이 지역 미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고 관찰했다.

**정확하고 친절한 여행안내**

**장 여 행 사**  
CANDY TRAVEL SERVICE

● 국내외 항공편 (일본도 가능) ● 각종 여행수속 ● 교통편 안내  
●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 호텔, 렌트카 예약 ● 이민, 비자 안내  
● 각종 번역 및 통역 ● 항공 보험

**523-7057**

\* 24시간 \*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북장이점**  
NORTH GATE WAY  
노스게이트  
사립센터  
NE 103ST  
5th 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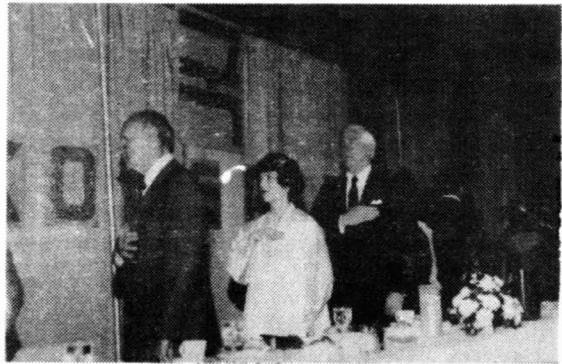
『한국의 밤』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이 행사가 크게 성공했음을 치하했다. 많은 한인교포 참석자들은 "『한국의 밤』에 참석해서 정말 한국인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한인회의 노고에 감사했고, 미국 커뮤니티 인사들도 한인회 커뮤니티에서 볼 수 없었던 우수한 행사였으며 "한인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훌륭하게 단결되어있는지 몰랐다"고 평했다. 행사후 미국인 참석자들도 부어 그동안 30여종의 감사장이 들어왔다. (영문 페이지에 소개)

『한국의 밤』은 83년도 한인회장단 임이 년초부터 힘을 기울여 추진한 범교포적인 행사로 널리 교포사회 인사들도 『한국의 밤』 행사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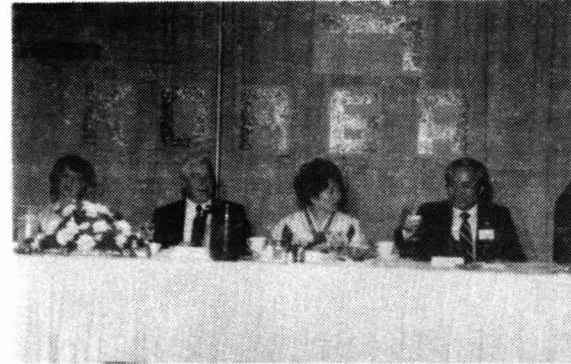
인회 이사 임원진과 함께 3개월동안 수차례 회의와 손수한 이지역 교민사회의 재능과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이 행사를 치루는데 약 1만 3천불의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처음에는 자금 염증이 엄격되었으나 그동안 교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금으로 경비를 무난히 확보하였다.

한국의 밤은 1975년 덴 에반스 주지사가 처음으로 선포한일이 있었고 올해가 두번째였다. 4월 23일과 24일 2일간 올림픽아 주정부 경사에 성조기와 함께 게양되어 푸른하늘에 높이 휘날린 애국기는 우리 한인들이 이제 이지역에 그 힘을 힘차게 뽐고 있음을 상징하는 듯 했다.

### 『한국의 밤』 이모 저모



△양국 국기 배례



△ 주지사와 한인회장



△컴퓨터간의 친화를 위한 기도



△ 김경원 UN 대사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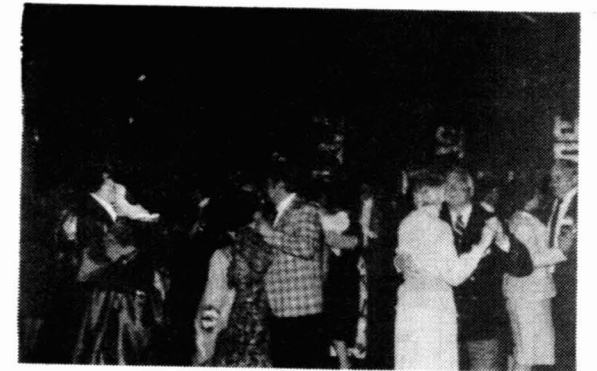
△ 스펠만 주지사인사



△ 웰리암스 시의회 의장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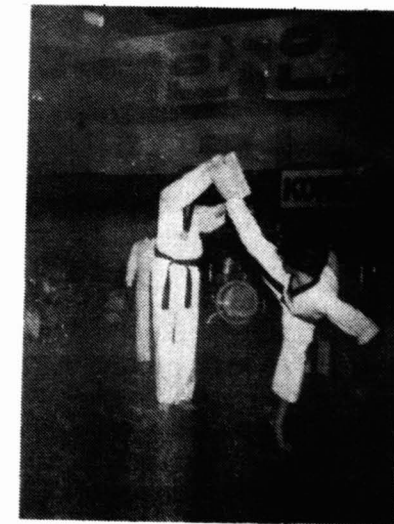
△ 궁중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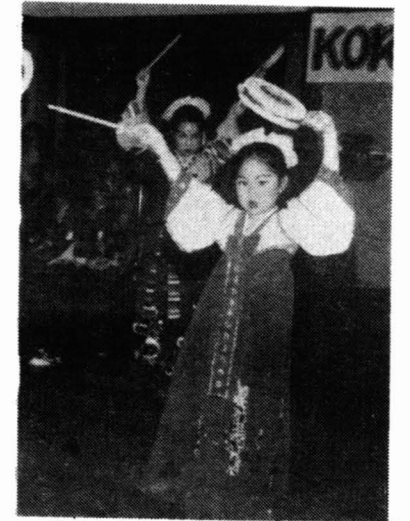
△ 사교춤



△ 민속무용



△ 태권도 시범



△ 어린이 무용

코리아 데이를 맞이하는 워싱턴주 동포들에게

### 류 병 현 주미대사의 메시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 C.

친애하는 워싱턴 주 동포 여러분,

시애틀 - 워싱턴 주 한인회를 중심으로한 귀지 한인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진심으로 축하 하오며, 한국의 날을 맞아 메시지를 드리게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신호범 한인회 회장과 임원들의 그간의 아낌없는 노고에 대하여 우선 지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오늘날 우리 재미 동포 사회가 당면한 과제의 하나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하루속히 굳건한 내적 기반을 다지면서 미국 사회의 구계에 진출하여 한국 민족으로서의 우수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가야하는 것 입니다. 즉, 건전한 고도사회의 육성을 통하여서만이 우리 재미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킬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아 살고 있는 이 미국사회에 대한 기여와 아울러 모국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오늘 4.23. 시애틀 - 워싱턴주 한인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날" 행사는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단합된 모습과 우리의 고유한 문화 및 전통을 미국 사회에 과시함으로써 한층 더 문화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고양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계기가 될것으로 확신 합니다.

더우기 "존 스펠만" 워싱턴 주지사는 이날을 "한국의 날"로 선포키로하고 우리 고민사회의 발전을 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니 이는 워싱턴주 한인사회의 기쁨인 동시에 한미 양국민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본인으로서도 대단히 기쁜 바 입니다.

친애하는 워싱턴주 고민 여러분, 그리고 신호범 한인회장님,

뜻깊은 "한국의 날" 행사를 맞아 본인을 초청해 주셨을지다만, 기간중에는 불가피한 일정관계로 직접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귀지 이문수 총영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한인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귀지역 사회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보여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워싱턴 주 한인사회의 끊임없는 발전과 고향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1983. 4. 23.

주미대사 류병현

## ● 고국의 소식과 흥취가 가득 담긴 週刊中央 무료배부!!



주간中央  
본 주간중앙은 중앙일보  
에독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中央日報

광고 및 구독신청은

시애틀 ☎ (206) 838-3155  
타코마 ☎ (206) 927-5915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을위한 호소문

# 『한인회관 건립을 위하여』

한인회 이사장 이 동 립



이 지역 한인회가 15년전인 1967년에 창립되어 그 간 우리교포사회는 질적, 양적으로 많이 성장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서애를-워신은주 한인회는 초창기에는 "조용하고 단탄한" 친목단체로 발족되어 창립과 함께 포부도 컸고 의욕 또한 근태 어느 해에 못지않게 진지 했었습니다. 그 당시 교포사회란 어느 한 대 가족에 불과할 정도의 인원으로 서로 만나면 항상 반갑게 인사들 나누며 상호 친목단합 봉사및 이익을 위하여 자진합심 협조하며 정담계, 조용하게 잘 지내는 가운데 한때는 자체회관을 갖기위하여 회관건립 위원회가 구성되기 까지 하였습니다. 회관건립위원회는 회관건립 모금을 위하여 영화상영, "켄디" 와 호박장 사등을 하여 가면서 초창기의 부른 꿈을 실현하려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난 오늘날 아직도 우리는 오막살이 단칸방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남의 선행사리를 해야하는 실정에 놓여 있음은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그간 여러 역대 한인회장단 및 임원, 이사진의 숨은 노력으로 다소의 건립기금이 마련되어 은행에 적립되어 있고 우리모두의 더 적극적인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통한 모금활동및 그 성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의 상태도 보아서는 회관건립은 아득한 꿈만같이 보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다행이 이고 장은 손수교포사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고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지혜를 발휘하여 가족및 부부합심으로 놀랄만큼 이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 둘 자기사업을 개척하여 정착하고 있음을 볼때 참으로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하며 으뭇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 각자가 자립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잘산다는 것은 한편 우리들 자신의 애국애족과 직결된다고 볼수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차차 자리를 잡고 안정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한사람 한사람이 교포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의 후세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들의 회관도 마련하고 우리 교포사회의 장애와 발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성의를,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시할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가 순수한 마음으로 각 개개인의 견해나 사고방식, 인생관, 생활양식, 대정부관등의 의견의 차이나 의견대립이 다소있더라도, 우선 우리들 자신의 교민사회를 위한일의 첫 단계로서 우리에게 곱하고

필요한 회관건립을 시작해야 하겠으며 이일을 하는데에는 나나 없이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땀과 노력으로 서로 단합된 노력과 힘이 결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인회관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일입니다. 한인회관이 세워진다면, 단합된 마음으로 훨씬 보람있는 일을 할수있습니다. 경노사상을 앙양키위한 상주경노회의 운영,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배움과 놀이터, 각종단체를 수용할수 있는 회의장, 어려운 고민을 도울수있는 봉사 사무실, 그리고 이민사회의 희노애락을 표현할수 있는 공회당이 될수도 있으며 어른들의 사랑방이요 의사소통 대학의 광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초기이민이나 또 하주에서 오는 교포에게 직장알선등보다더 믿음직스러운 안내와 휴식처로도 제공될수있고 자녀들에게 모국의 문화역사등을 이해시켜주며 특기 지도, 우리민족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상설 프로그램도 마련할수있는 편리한 다목적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 어찌 생각만해도 가슴실켜며 땀뻑하고 믿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인회관은 어느 한 단체나 개인의 재산도 아니며, 한인회장이나 임원을 위한것도 결코 아니며, 돈있는사람이나 일부 몇몇 특수인사들의 것도 아니며, 오직우리들은 교포 남녀노소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몇천 몇백불씩의 현금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단 일불씩이라도 또한은 고민 여러분 각자들 한분한분이 다같이 참여하여 정성껏 형편에 따라 정성어린 성금을 내주시는 것이 더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회관은 항구적으로 언제나 우리 한인 교민사회가 대대로 이어가며 활용할수 있습니다. 한인회를 누가 운영하든은 고민들의 공익을 위하여 언제나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으며 어느 특정인이나 영리를 위하여서는 사용할수 없는 회관인 것입니다. 그럼으로 진정으로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들 각자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회관을 마련하는데 최대한의 성의와 협력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친애 하는 교포 여러분 !

바쁜 생활에 그달프시겠지만 우리 이곳의 교민사회, 내 동족 내 동포를 다만 몇분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은둔하고 계시면서 교민사회를 가만히 관망만하고 계시는 교포 여러분 ! 사업에 분망하여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한번쯤은 우리 교민사회를 위하여 자신을 좀 희생할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내 동포의 전담이 될 시급한 회관건립을 위하여 다 같이 참여하시고 조금씩이라도 성금을 내주시어 도와주실수가 없으시겠습니까? ! 의식한번 줄이고 "골프"한번 줄여서 이 뜻깊은 고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다 같이 참여 하여 봅시다. "리플모아 해산"이라고 모두가 참여만 한다면 기필코 성취될수 있는 일입니다. 다 같이 합치면 우리모두에 큰 힘이 됩니다. 말할여지가 없습니다. 은 고민들이 적드라도 성의껏 형편에 따라 성금을 내어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참으로 그 힘은 크겠으며 이번만은 모든것을 잠깐있고 오직 이한가지 목적을 위해서 뭉쳐서 뜻있는 일을 같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곧 구성될것으로 믿어지는 한인회관 건립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모금운동계획이 세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고민 여러분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회관건립 운동에 다같이 자진 참여하여 성의와 정성을 표하여 주실수가 없으시겠습니까? 교포사회를 위하여 서로를 믿고 돕고 힘을 내어서 한인회관 건립 모금운동에 모두가 참여하고 성금을 냅시다. 남을 위하여, 한인사회를 위하여 한번 봉사하고 돕는 다는것이 이 얼마나 장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친애하는 고민 여러분 !

한인회관이 선다면 이 얼마나 땀뻑하고 든든한 일이겠

습니까 ! 금년에는 꼭 그결실이 맺어지도록 성실껏 협조 합시다.

이 지역에 3만여 교포가 열심히 또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음은 우리는 큰 자만으로 삼아야 되며 우리들 각자가 잘산다는것은 또한 우리 한인사회가 잘사는 일이 되겠으며 여러나라 라 민족들이 사는 이 미국땅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다같이 회관건립에 참여하여서 그들에게 지지않게 또 민망스럽지 않게 자랑스런 우리 교포사회를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각교회, 교회지도자및 교직원, 상사, 사업체등 각종단체에서 공회와 사업에 열중하고 계시는 교포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회관건립에 출선 참여 협조해 주실것을 믿고 부탁드리오며, 또 협조하여 주실때에 그 힘은 참으로 보람되고 위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각 교회, 한인기관 상사사업단체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최대한의 원조와 성금을 해주실것을 갈구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 당장 사정이 넉넉치 못하시더라도 우선 정성을 표시하고 참여하는 뜻을 약속하여 성금을 내시겠다는 서약이라도 한인회에 하시고 형편이 되는대로 금년안에 분납 헌금하시는것도 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그간 담보상태에 있는 회관건립관계를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에 3만여 교포가 산다고 수적인 것만을 자랑하지 말고 한인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시작할때가 왔다고 느끼기에 서후른 글로 여러분의 도움을 호소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말이

## SUN TROPHY CO. 기쁜소식!



우리의 문화 우리의 자랑 !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고유의 민족문화를 계승하여 시애틀 타코마 인근지역에 아름다운 우리의 말 한 글로 각종 트로피, 감사패, 기념패, 각교회문패 단체마크 (동창회, 낚시회, 골프회, 정구회등) 원하시는 마크를 넣고 (축구, 배구, 태권도, 야구, 사격등) 해 드립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찾아주세요.  
주소 : 12336 LAKE CITY WAY N.E.  
SEATTLE, WA 98125  
전화 : 367 - 4432 (가계) 363 - 9547 (집)  
대표 : 안 선 균  
AHN, SUN K.

잘못 된게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회관을 마련하겠다는 참뜻만 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최소한의 성의만이라도 표시한다면 회관은 단연코 금년안에 어려움이 없이 꼭 마련될것으로 확신하며 금년말의 "아리랑의 밤"행사는 우리들의 새 회관에서 멋있게 시원스럽게 열어 볼수가 있지 않겠나하고 생각이 됩니다. 매마튼 이 지역에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된 우리의 한인회관에서 외척하고 당당하게 금년의 "아리랑의 밤"을 화기애애한 가운데 개최할수 있다면 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며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민들도 힘붙여 확고단결하여 무엇인들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과시하여 보며 회관건립으로 우리한인들도 다 같이 굳게 결속할수 있으며 중요한 일은 서로 돕고 신력하며 달성할수 있음을 보여 줄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빠르게 세월은 사정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민사회에 금년무중 하나인 회관건립을 위하여 실질적인 일을 착수해야 할때가 왔습니다.

지난날의 누구의 잘못만을 탓하거나 말만할때는 이미 지났으며, 우리들은 오직 오늘과 내일을 위한 우리들의 한인회, 한인전체 고포사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현실적이고 실속있는 일을 착수 강행하여 실천과 전진을 성취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고포 여러분!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여러고민들이 모두가 "한핏

줄", "한얼", "한뿌리"를 가진 같은 우리의 동족이라면, 우리들의 회관건립 사업등 우리한인들을 위한 일에 당연히 다초나마 참여하고 봉사협력해야 될것이오며 그러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가 온 고민각자마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건 나쁘건 우리 한조상과 한조국의 같은 뿌리와 핏줄을 가진 한민족의 아들딸인 선.후배 여러분들이시여, 조상의 혼과 얼이 있는 우리조국 삼천리강산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며 우리동족을 위한 우리의 한인회건립에 다 같이 참여합시다. 그래서 이 고장의 우리 백의 민족의 긍지와 아름다움과 슬기로움과 얼을 심어보며 우리들도 하나로 뭉쳐서 잘살수 있는 민족임을 보여주며 이지역에 자라는 우리들의 후배들에게도 무엇인가 하나 남겨 줄수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회관건립으로 이 고장의 온거레가 하나로 뭉쳐볼수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도 있겠으며, 이 기회에 온고민들이 한번 너그럽게 마음의 문을 활짝열고 서로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화합단결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다 같이 서로 사랑, 화목, 단합, 인내, 봉사, 상호협조하여 단란하게 잘 살아 봅시다.

끝으로 여러 고포 각가정에 충만한 사랑과 안녕, 건강과 번영이 항상 같이하고 행운과 하느님의 가호가 언제까지나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한인회관이 금년안에는 꼭 실현되기를 빌면서...

## 『한인회 활동』

### 한인학교 개교

한인회에서 조직한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학교가 오랜 준비끝에 4월 2일 개학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한인회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레이크 씨리 스쿨 빌딩에서 개최된 한인학교 개학식에는 이문수 총영사, 김간난여사, 이기동씨등 내빈과 신호범회장및 임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등 약60명이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작하는 한인학교의 개교를 축하하고 장래발전을 빌어 주었다.

한인학교는 언어반, 무용반, 태권도반, 음악반으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각 반의 교과내용과 교사진은 다음과 같다.

#### 언어반

1. **무공화반**: 한글을 전혀못하는 학생을 위한 기초반으로 이영희 선생(시애틀 교육청교사)이 영어.한국어 이중언어로 지도하고 있으며 이반은 또다시 유년부와 초년부의 연령구름으로 나누어 따로 가르침.
  2. **장미반**: 한글을 어느정도 해독하는 학생을 위한 중급반으로 김진주 선생(시애틀 교육청교사)이 영어.한국어 이중언어로 지도하고 있으며 무공화반과 같이 유년부, 초년부로 나누어 가르침.
- 무용반**: 연령과 성별에 구애없이 학생들에게 한국의 고전무용을 가르치는 반으로 무용전문가인 트레이드 윌 선생이 교수.
- 태권도반**: 연령과 성별에 구애없이 기초태권도를 가르치며 워싱턴주 태권도 협회 회장 윤학덕 사범과 페레말웨이 태권도장이 정언 사범의 지도하에 문학생들이 교수.
- 음악반**: 한인학교 학생 전원에게 한국노래를 가르치는반으로 성악가 오경아 선생이 직접지도.

한인학교의 교사진은 현재 워싱턴주에 정착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역 교사들및 각 교과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고 학교 행정및 교과과정은교장 오계희 박사와 부교장 백경숙 선생이 담당하여 운영되고 있어 명실공히 책임있는 고포사회를 위한 학교로 발전하고 있다.

4월 2일 개학식 40여명이 등록된 학생으로 시작된 한인학교가 5월초 현재 80여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것이 전망된다.

한글학교는 또한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학부모들을 위한 영어 회화반, 요리강습반의 기본 프로그램과 필요에 따라 자동차 정비 고습반, 꽃꽂이 강습반등을 수시로 조직하여 실시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도 유용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외에도 같은 지역에서 오는 학부모들간의 사정면담(카플)조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등교를 편리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자녀들을 한글학교에 등록시키고자하는 학부모들은 한인회 사무실(362-4500)를 통하여 오 계희 교장 또는 백 경숙 부교장에게 연락하여 상세한 문의를 해줄것을 기다리고 있다.

### 한인학교 학부모회 결성

5월 7일 한인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모임에서 앞으로 한인학교의 운영과 계획에 부모들의 참여 권장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화 하기위해서 학부모회를 조직하였다. 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회 회장및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귀희 박사  
부회장: 오화실 씨  
섭의: 이선혜 씨  
서기: 노영숙 씨

### 한인학교

### 시애틀 한인장로교회 한글학교와 상호 협조키로

4월 2일 오후 1시 한인학교및 교사들은 시애틀 한인장로교회 한글학교 교장 김간난 여사, 부교장이기동씨등과 시애틀 시내레이크씨리 로얄포크 식당에서 오찬을 나누며 앞으로 고민사회를 위한 한글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 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교 운영 담당자들은 앞으로 두 학교가 업무적인 연에서 상호 협조하고 특히 교육자료와 교육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서로 교환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시애틀 한인장로교회 한글학교는 등교회에서 운영 하는 한글학교로서 현재 약 120명의 아동이 등록되어 주말교육을 받고있다.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 리스 서비스 센터

- 각종 가정용 및 사업용냉동기, 냉장고, 세탁기, 오븐 및 전기용품 일절수리.
- 용접(전기, 산소)
- Wood Stove 제작및수리
- Maintenance Contract 24시간 서비스

Mark W. Lee  
이 용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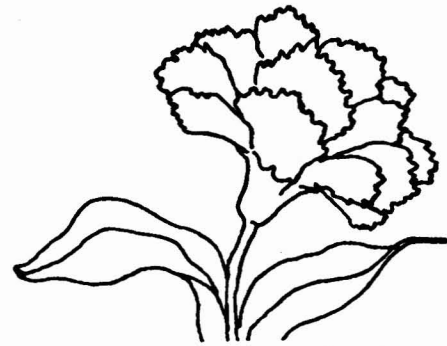
771-5728

4104-219th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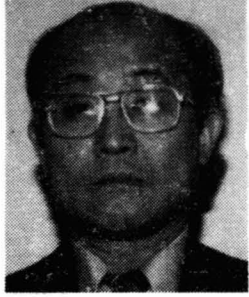
## 꽃은마음의 傳達

병원 결혼식 개업 약혼 각종파티  
장례식의 꽃등을 전화주문으로  
원하시는곳에 보내드립니다.



스튜디오 꽃집  
THE FLOWER STUDIO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98112  
(B) 325-5032 (H) 367-1534

## 한인학교 교사진 프로필



교장  
오계희 박사



교감  
백경숙 선생



언어반  
이영희 선생



언어반  
김진주 선생



태권도반  
윤학덕 사범



무용반  
인회 트레이드 웰 선생



태권도반  
이정언 사범



음악반  
오경아 선생

## 『한인회 활동』

### 이사 임원 공동회의 및

#### 제 6 차 임원회의

4월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3시간동안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 임원 공동회의에서는 「한국의 밤」 행사 계획에 따르는 작업분담 및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참석 인원수, 연회장 장식, 안내방법등을 토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글학교 운영문제에 관한 토의도 있었는데 오 계희 박사(현 한인회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한글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 이사임원 공동회의 및

#### 제 7 차 임원회의

4월 29일 오후 7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속개된 이사 임원 공동회의는 주로 4월 23일 한국의 밤 행사결과 분석과 행사진행과정의 재평가 및 5월 이후 2-3개월 동안의 행사 계획등이 토의 되었으며 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4월 23일 한국의 밤 행사 결과 평가

- 참석자들의 평을 기초로 분석해볼때 대성공이 있었음.
- 행사계획수립, 진행과정에 다소 차질이 있었으나 행사의 규모와 성격으로 보아 불가항력적이었음. 그러나 다음 행사부터는 지적 토의된 사항을 세심히 참고하도록 할것임.
- 행사를 위하여 출연하신 분들 또한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한인회장 이름으로 감사의 서신을 내도록 함.

#### 2. 어린이날 행사 계획

당초에 계획했던 어린이날 행사는 5월중에 밤고포적 규모로 실시하며 하루를 완전히 어린이들을 위하여 바치도록 하는 행사로 계획, 행사 주관은 한글학교의 오 계희 교장, 백 경숙교사가 담당하며 시애틀 시내 Discovery Park에서 실시함(행사 일자는 6월 11일(토)오전 10시부터 우천물문으로 시행하기로 추후 결정하였음).

#### 3. 1983년도 Group Festival 에 참가

노스 케이트 센터에서 올해 두번째로 오는 6월 25일, 26일 양일간 열리는 Ethnic Fest(인종

축제) 행사에 한인회에서 참가하기로 결정 이를 주관하는 Ethnic Heritage Council of the Pacific Northwest(예 평양 서북미 인종문화진흥 평의회)에 정식으로 참가 홍보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한인회에서 불고기, 양식등 한국음식과 가능한 공예품을 판매할수 있는 전시 판매장 booth 1개 또는 2개를 신청하기로 했음.

#### 4. 백 경숙 교사를 한글학교 부교장으로 임명

백 경숙 교사를 한인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 부교장으로 만장일치로 임명했음.

### 제 4 차 이사회

5월 8일 오후 5시부터 2시간동안 한인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 4차 이사회에서 토의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임명보서 이사직사표 수리: 이날 임명보서가 보내온 사표를 이사전원 만장일치로 수리했음. 전임 한인회장으로 83년도 한인회 이사회에 자동이사였던 임명보서는 지난 1월 16일 첫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반려했으며 이날 제출된 사표는 두번째 있음.

### 새재무부장에 박태호 씨



한인회는 직장사정에 의하여 부득히 임원활동을 할수 없게된 헤식 스미스씨 후임으로 박 태 호씨를 4월 1일부터 재무부장에 위촉하였다. 박 태 호씨는 현재 GTE 에서 Network Facility 엔지니어로 근무하고있다.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 『논단』 시애틀 한인학교

\* 미국사회와 한인학교 \* 오계희



요즘 우리 고포들 가운데 한국어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한국의 전통적 문화 정신을 소개하여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한인학교의 설립과 육성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편 영어가 지배적이고 공식적인 언어이며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 문화양식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 사회에 살면서 구태어 한국어나 한국의 문화나 하는 것을 알아서 무엇에 쓸 것이며 한글을 배우고 하는 것은 영어와 그 문화양식을 배우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의를 가진이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 왜 한국어가 필요하며 한국 교육의 정신을 안다는 것이 과연 영어가 지배하는 이 문화속에서 사는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설명되어야 하지 않는 것이 누구나 가지는 심정인 것 같다. 또한 이러한 설명은 우리 한인학교의 설립의 의와 기초 교과 내용의 선정과 교수법 선정 등에 좀더 확실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게도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설명을 시도하여 일반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교육의 정의를 더더가져도 내릴 수 있겠으나 그중 하나로서 교육이 미래 사회에 적응할 새 세대를 준비시키는 역할이라고 본다면 무슨 내용을 왜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질문은 새 세대가 살 사회를 분석하고 그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점을 분석하는 데서 밝혀질 수 있다고 보겠으며, 같은 논리로서 한국어와 우리 전통 문화 정신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의문도 미국 사회의 성격과 그 요구를 분석하는 데서 상당히 알아 볼 수 있게 되지 않나 싶다.

**미국 사회:**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미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질적인 다수의 인종이 같이 어울려 살고 있어서 그들 집단 상호간에 일어나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며 또한 각 인종이 단체로서 미국 사회에 활동하여 가는 위치와 영향력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 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것을 곧 인종의 문제라고 하거니와 이 인종의 문제는 각 개인은 그가 속하는 집단의 이유 때문에 특정한 영향을 받는다는 데까지 이르면 문제의 심각도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인종의 문제를 논하고 이러한 인종 문제가 있는 미국 사회에 각 개인이 유능하게 생활하여 가는 어떤 지침을 제시하려는 논리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 다원론(pluralism)과 문화 동화론(assimilationism)의 두 이론이다.

문화 다원론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각 인종이 뚜렷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따로 또 따로 존재하며 각 인종은 각자의 정체성(아이덴티티, Identity)을 가지고 있으며 각 인종은 단체로서 서로 동등하게 행동하는데 인종 단체 서로 간에는 경쟁의 관계를 가지며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서로 옹호 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각 인종 단체는 그 구성원 개인이 강한 정체성을 가질 것을 강조하며 개인이 자기 단체와 인종과 문화에 신뢰심을 키울 수 있게 하여 단체로서 융집될 수 있을 것을 강조한다. 특히 이 신뢰심의 육성 강조는 "억압"을 받는 소수인종 단체에서 높거니와, 그것은 자기들의 보호와 안전을 서로 힘을 모쳐 가지려는 데서이다. 이에 반하여 문화 동화론자(어시미레이션이스트)들은 문화 다원론자들(푸르타리스츠)이 미국 사회내의 인종 및 문화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동화론자도 다종의 인종간의 차이를 인정은 하나 오늘날 같이 고도로 산업화 및 기술화된 미국의 사회 또한 민주화가 최대로 일반화된 이 사회에서는 서로의 인종 및 문화간의 차이가 주는 영향이 급속히 약하여지며 굵기야는 거의 없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오히려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만인공통의 일반적 사회(universal society) 즉 모든 종족과 문화가 섞여 혼연의 일체를 이루는 사회가 형성되며 그러한 가운데 개별적인 인종 단체는 흡수 동화 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 반박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이 동화론이 말하는 만인공통의 일반적 사회(유니버설 소사이어티)란 메조리(다수인종) 중심의 사회이며 마이노리티(소수인종) 구단은 억압과 권익의 박탈로 차별을 받고 소외되어 버림으로 일반적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화론은 미국 사회의 메조리인 백인의 사상가중에서 대부분 논의 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며 한국 문화의 정신을 심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엄격 하는 것은 문화 다원론(푸르타리즘)의 입장을 취하고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서 유지

며 그 힘으로 차별대우에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요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어딘가는 현실을 다소 동한시 한듯한 감이 있음을 감수지 못하는 데 사실상 오늘날 인종 문제 사상가들도 위의 두개의 대립되는 인종 문제 이론이 인종 문제를 상당히 편파적으로 본다고 비판하고 두개가 다 인종 문제를 더 현실에 충실히 서서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원론자가 주장하듯 미국 의 여러 인종이 서로 엄연히 구별되어 존속하면서 개인이 속하는 인종 문화와 그 단체를 떠나서 살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개인들은 또한 모든 인종이 섞여서 활동하며 사는 만인공통의 문화권 및 사회 속에서도 사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고 또 각 인종 간에는 경쟁적 적대적 관계만이 있다고 보는 것도 시정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 만인공통의 문화권이 있으며 그 중요성도 인정은 하나 그것이 백인 중심의 문화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요 이 공용 문화권에는 다수의 소수인종(민족)의 문화도 독립적으로 섞여 있는 오히려 개방 사회(Open Society)의 성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제 삼자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사람은 어느 인종의 출신을 막론하고 두개의 사회권을 살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자기 인종만으로 구성된 문화권과 사회와 다른 하나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통의 문화권으로서 그것이 백인 문화 중심이 아니고 각각의 인종과 그 문화들이 독립하면서 연관을 맺는 소위 개방 사회의 성격을 띤 만인공용 문화권의 사회며 어느 누구나 이 두 사회권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용 문화권 내에서의 의사 소통의 언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이 주장에 의하면 누구나 자기 인종의 언어와 공식 언어로서의 영어를 두개다 유창히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많은 인종 문제 사상가와 지도자들이 이 이론을 주장하거니와 이것은 미국의 인종의 현실을 앞세우고 생각할 때 가장 실질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다.

**한인 학교:** 이제 인종 문제에 대한 제삼을 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 자녀가 살아 가야 한다고 가정할 때 그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기술과 소양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 대강이나마 윤곽이 세워질 것이며 그것을 요약하여 보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첫째, 우리 자녀들은 한국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문화 유산을 이해하고 그것의 현명함을 발견하여 자신의 인종과 문화에 자량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 사회의 일반공용 문화권에서 사용된다는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일반공용 문화권을 이루고 있는 여러 인종의 문화와 기본 가치 체계를 그것이 메조리인 백인의

것이건 또 마이노리티인 기타 인종의 것이건 다 이해 하며, 또 소확 하고 불편 없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세가지 소양과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자기인종인 한국인 사회에서 살면서 자기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력을 얻을 수 있고 또 이곳에서 나와 일반공용 문화권의 사회에 들어가서는 자기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영어도 그 누구와도 불편 없이 활발히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의 자녀만이 아니라 영국계, 일본계, 그 어느 인종을 할 것 없이 미국에 사는 사람의 자녀면 누구에게나 해당 된다고 보며 이것은 곧 미국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겠고 또 한인 학교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기본 지침도 되는 것이 겠다.

미국 의 시민을 준비하는 공공 교육 기관은 규모와 힘이 큰 것이나 우리 자녀에게 키워주었으면 하는 소양과 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사실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 그것은 이 기관이 단지 백인 문화권 중심의 교육에 치우쳐 소수인종 및 그 문화권의 내용과 그리고 모든 인종의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요약하여 본 소양과 능력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1950년대 이후로 이 공공 교육 기관에 소개된 것은 (1) 인종 통합의 조치 (2) 다인종 문화 교과 과정의 작성 그리고 (3) 이중 언어 교육, 개혁 운동은 미국의 공공 교육 기관이 차차 다수 인종 문화 이론에 입각한 교육의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운동으로 이에 기대 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운동은 미국의 역사가 입증하는 바와 같이 자칫 잘못하면 시장은 되겠지만 언제 어떻게 시들어 질지 미덥게 예측 못하는 여

**시애틀 한인 학교:** 우리 이 지역 한인 고포들이 한인 학교의 교육을 원하게 되는 것은 엄밀한 뜻에서 미국의 공공 교육이 석연하게 우리 자녀의 장래의 문제를 맡아 주지 못하는 점을 스스로가 보충하여야 겠다고 행동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인 학교의 소임과 임무는 우리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외에 일거한 세가지 소양 중 첫째도 들었던 한국어의 능력과 한국 전통 문화의 정신을 이해 이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하여 시애틀 한인 학교의 교과정이 구성되고 학습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더 넓은 계는 이 첫째 목적이 중심이 되며 그러나 다른 두 목적도 심중에 두어 표괄적으로 계획 운영되어야 하며, 시애틀 한인 학교도 이같은 목적과 취지를 갖고 구성 되어 있다. 교과정은 언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 이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완전히 한국인과 같이 유창한 한국어를 할 수 있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언어는 그 문화의 중추이며 또 독특한 사고 방식의 표현임으로 이를 다른 언어와 구별할 수 있게 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나아가 한국어의 특

성에 대한 공저를 얻게 하여 자신의 자아인식과 공저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큰 관심의 하나이다. 교과과정의 다음은 한국문화정신의 소개인데, 이에는 한국고전 무용과 예견도의 정신을 음악의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한국 민속과 예법절과 역사적 종합적으로 소개하여 기본정신을 이해 습득하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교수 방법으로는 개념구성을 비판적으로 하는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과정의 세계의 관심은 이러한 내용의 학습을 심판과 중이나 읽기 등 기호만 진행시키지 않고 개념의 서로 다른 역할을 어떤 사회의 모델로 구성하여 그 관계를 알게 하는 방법이나 단체활동을 통하여 미디어를 이용하여 시각으로 어떤 모형을 보여 주어서 이해습득하는 등의 여러 학습 방법으로 아동이 지름 배운 한국어나 한국문화정신에 임하여 서로가 사회적 관계를 실시하여 봄으로써 같은 인종간의 사회관계의 혼란과 또한 그것이 다른 인종과의 맺는 관계의 다른 관점을 체험할 수 있게하여 미래에 한국인 중문화권에서도 원만이 갈 수 있게 하고 또 만민공홍의 문화권 속에서도 자기의 사회교류능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

필자: 교육학 박사 시애를 교육청 교사

교사는 한국과 그리고 미국의 문화권을 다 이해하며 한국어와 미국 사회의 공식적인 언어에 능통하여야 하며 한민족의 교육의 특수한 목적을 그들의 자질에서 이미 보일 수 있게 하여 아동이 그것에서 이미 훈련을 받게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다.

세계를 한인학교는 학부모회 및 성인교육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요구를 깊이 삼각하여 교과과정과 교육목표와 학습법도 해결하여 가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구조적 조건은 세계를 한인학교의 초기의 목적을 위하여 고재의 충실성과 시성의 정비를 아니할 수 없는 데 이는 앞으로 시성이 되어 관건이다. 교육은 교육 본래의 활동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의지되지 않도록 자립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이 또한 의논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싶다. 세계를 한인학교는 모든 한인을 위한 가장 범고목적 인민교육 기관으로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이며 교육은 그 지역 사회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본 한인 학교가 그 요구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동시에 고포 사회의 많은 조건과 성원을 바라는 바이다.

『2세 교육을 위한 제언』

학부모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백경숙



미국에 와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지 10년이 넘 어가고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 속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사연들이 많다. 학부모들께서 교사들에게 많이 할 말씀들이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부모들께 부탁 말씀을 드려야겠다. 어느날, "백선생님, 한국 아이들에게 머리에 이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고장선생님의 호출이 있었다. 그 다음 주에는 견학고가 야단이 났다. 학교 간호원의 손이 모자라 김카운터의 간호원들도 동원이 되어서 전학생들이 수업의 방해로 받으며 머리 이개사에 들어 갔다. 옷이 얇아 할 일인지 몰아야 할 일인지 내 얼굴을 똑바로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어느 학부모들께든지 미국에 오신 이유 중 100에 90명은 자녀교육 때문이라고들 하신다.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첫째 가정교육의 철저한 밑바탕이 없어서는 어떻게 훌륭한 자녀교육을 바랄 수 있겠는가? 물론 바쁜 이민생활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침, 저녁으로 일하시는 이유를 모를 리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2세들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 테레비전 앞에서 팝콘, 포테이로 칩한 것으로 먹고 먹고 먹는 만화영화들 즐기면서 또한 자 기들끼리 만든 음식으로 격당히 저녁을 때운 후 그날 잠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아동들을 생각할 때 그 똑같은 시간에 아마 우리 부모들의 시간도 그 100배 이상으로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싶으며, 나중에는 그 조 가난 그릇들을 아무리 풀로 부쳐도 원래 그릇으로서는 만들 수가 없을 것이다.

우선 피부 색깔 다크고 눈 색깔 달라 잘했을 때보다도 잘못했을 때 더욱더 두드러져 나타나기 마련인 우리 입 장인데 이 복합적인 사회안에서 누구 보기도 똑똑하게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두발을 똑똑 내어 버치며 걸을 수 있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는 우리 한민족 학부모님들의 세밀하고 치밀한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고 싶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방과후 속제는 제대로 다 끝났는지, 연필한자루라도 잘 깎아졌는지, 자기전에는 몸을 깨끗하게 씻었는지, 아침에는 깨끗한 옷으로 단정하게 복장을 하고 학교에서 성직은 어머하며 고우관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생님들께 가끔 찾아오 시지는 못해도 전화로라도 한학기에 한번씩이라도 문의해 보신 다든지 내곡심을 부리면 한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가 이 미국생활을 좀더 잘 이해해서 금전적으로만 free lunch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길 밖, 이는 다만 치중치 말고 좀 멋있게 한국 학생이라면 어딘지 모르르게 떠나거나 단정하고 공부감하는 착실한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민족이라는 부리를 귀하게 심어줄 수 있게 우리 정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2세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다.

또한 이번 한인회의 교육부를 담당할 입장으로서 이번 한인학교가 흥태에 있던 부족안정들을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더 이끌어 나가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뜻 있게 뿌리박고 나갈 것이며 동시에 학부모 한민족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를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가벼워지고 활짝 열리고 있다.

(필자: 시애를 교육청 근무 한인학교 교사)



HO PARK ANTIQUES

浩朴古美術

고려 이조자기 이조가구 평공·족자·액자  
브래스 제품 고민속품 불교미술 선물용품  
염가매출 및 고가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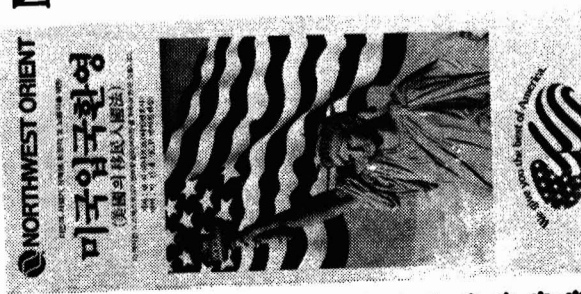
(206) 343-5577

Open 11:00 - 6:00 p.m.  
Closed on Sunday  
2018 2nd Ave. Seattle, WA 98121

NEW PUBLICATIONS NOW AVAILABLE

New Book on U.S. Immigration Laws  
In Korean Language  
Prepared by Dan P. Danilov, Esquire  
Translated by Mr. Kun H. Park  
Published in Korea  
by Northwest Orient Airlines  
대니로브저 박진홍번역

- \* 『미국 입국 환영』  
(미국의 이민 입국법)
- \* 『미국 이민법에 관한 일반안내』
- \* 무료배부



Also Available:  
"General Information About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s"  
In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y Dan P. Danilov, B.A., J.D.  
Available FREE From LAW OFFICES OF DAN P. DANILOV  
3108 Rainier Bank Tower - Seattle, Washington 98101 Tel: (206) 624-1580

## 『한인회 활동』

### 한인 커뮤니티 비하한 『한국의 영향』 기사에 한인회 TNT 에 강력항의

타코마 뉴스 트리뷴(Tacoma News Tribune) 지가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간 5회에 걸쳐 연재한 "한국인의 영향"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는 4월 14일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TNT사를 방문한 신호범 회장, 엄도승 이사, 광종세 부회장 및 박건홍 한인회보 편집부장은 동신문사 편집국장실에 모인 신문사측의 돈 퍼그너리 편집국장 주필 및 사업부장에게, 문제의 기사가 타코마 한인사회를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 함으로써 한인들의 위신을 저하시키고 미국 사회에 한인회 이미지를 미화시켜 심어주는 커다란 과오를 범했음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시애틀 한인회 대표들이 특히 지적한 사항은, (1) 타코마 지역에 과거 10여년간 급성장한 한인사회의 인구증가를 국제결혼으로 시작된 가족초청 이민, 외장결혼 및 기타 불법이민등에 주원인이 있는 것 처럼 보도한 것은 1965년도 이민개정으로 동반구에 이민분포가 개방되어 미국내 아세아 인구가 급증한 엄연한 현실을 도외시 했을뿐 아니라 한인들의 이민동기나 과정을 알잡아 본 것이다. (2) 타코마의 폰더스 지역에 "코피아타운"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 마치 한인들이 할세동 부정부순에 의한 흑색도 부동산을 마구 구입하는데 있고 그속에 매음, 고리대금업, 금전갈취, 불법이민 알선, 방화등 은근 비밀 범죄조직이 번성하고 있는 것 처럼 보도한 것은 선정적인 황색보도이며 이로써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를 미국 사회에 먹칠한 것이다. (3) 설사 한인증 범죄에 관련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데도 이것을 한인 또는 한인 커뮤니티와 결부시켜 확대 보도 하는 것은 해당기자 또는 신문사의 의도적인 편집방향이 아닌가? 더욱이 문제의 기사에서 지적된 한인범죄 혐의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추측이며 대부분 몇몇 경찰이나 이민조사관의 말을 근거로 한 것으로 성실한 신문사의 보도에도 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하여 신문사측은 문제의 기사가 전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국구 변명하였으나 한인회 대표자들은 문제의 기사 취재시 기자들이 이 지역 한인사회 단체의 대표자들로 부터 광범위한 의견청취 없이 경솔하게 한인사회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미국사

회에 한인회 이미지를 회복할수 없으리만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다시 강조하고 앞으로 이런 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한인들이 건설하고 부지런하게 이민생활을 개척하면서 미국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밝은 측면을 보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문제 의 기사가 보도된 후 타코마 지역 한인들로 부터 신문사에 대하여 계속 항의가 들어와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 지역에는 그동안 TNT 기사를 읽고 분개한 다수의 인사들이 "인권유린 항의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고 동신문사에 장문의 공개 서한을 준비, 본회보 영문 페이지에 게재하여 미국 사회에 알리며 앞으로 적절한 후쟁을 전개하기로 결의 했다.

## 워싱턴주 주류관리청 청문회 연기

-한인회 항의 주요-

워싱턴 스테이트 리커 보드(워싱턴주 주류관리청)는 영어를 못하는 신청자에게 주류판매 면허증(리커 라이센스)을 발급할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려 했던 입법청문회를 시애틀 한인회를 위시한 마이너리티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7개월간 연기 했다.

주류청이 제안한 입법안 WAC-12-125에 대하여 지난 3월 10일자 신호범 한인회장의 항의 서신을 받은 주류청은 3월 10일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에 공식 회답을 통해서 이 법안이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당초 2월 23일에 개최하려 했던 청문회를 오는 9월 7일로 연기한다고 통보 하여왔다. 이 서신에서 주류관리청장 도버스 해나씨는 이와 같은 연기 조치는 이민제에 관하여 "좀더 의견을 청취하고 한인들과 이민제에 관련된 다른(마이너리티)구체들의 영입소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할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한 것" 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서신은 또한 주류청관하의 담당 사법관들은 앞으로 한인들이 미성년자들에 술 파는 것을 규제하는 워싱턴주법을 이해 하도록 하여 이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류청의 서신은 영문 52 페이지 참조)

## 『한인회 공고』

### 어린이 날 행사안내

금번 한인회에서는 이곳 어린이 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어린이 야유회"를 가지고 뜻있고 즐거운 한때를 가지고 지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즐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옛 운동회의 즐거웠던 경험을 되살려 많은 경기와 오락으로 프로그램을 작성 하였으니 어린이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일시 : 6월 11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3:30

프로그램 :

- 1) 경기 및 게임
- 2) 가족 (특히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수 있는 프로그램.
- 3) 인디안 박물관 견학 및 산책의 기회
- 4) 많은 상이 준비되어 있음

장소 : 디스커버리 파크 (Discovery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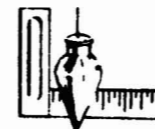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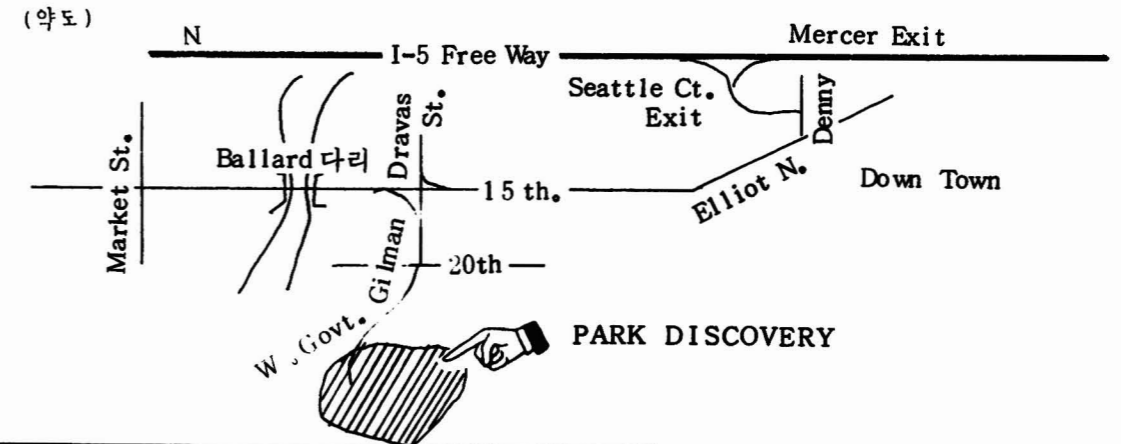
36th Ave W & W Government Way  
Seattle, Wa 98117

TEL - 625-4636

- 1) 점심은 각 가족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 음식을 만드는 시설이 공원내에 없아오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1983년 5월 일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신호범



## 김 목 공 소



### ● 신축 ● 증축 ● 수리 ● 실내장식

- 크고 적은 일을 막론하고 성심 성의껏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웁고
- 거리제한 없이 무료로 전적하오며 ※ 최신형 공구 및 장비
- 언제라도 전화문의 환영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드립니다

771-8019

소문난 김 대 진 목수

3825-191st S.W., Lynnwood, WA 98036

## 『한인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고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민 여러분들께서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많이 협조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한인회에 정성껏 보내주신 회비나 기부금에 대하여 몇가지 부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한인회비를 납부하시거나 회사금을 내시는 분들에게서는 현금이 아닌 수표나 모니오더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수표에 한인회비, 한인회 찬조금(기부금), 건축기금 또는 한글학교 기금등 명목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3. 1983년도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 1인당 \$10로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일 경우에는 \$20이며, 18세이상의 가족 1인 추가시마다 \$10씩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어떤 명목이던 한인회에 회사하신 분들에게는 반

드시 본 한인회에서 영수증을 우송해 드리겠으며, 한인회보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5. 한인회보에 발표된 명단에 회사하신분의 성명이나 혹시 빠진 분들이 있으시면 곧 한인회 사무실(362-4500)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인회 사무실에는 매주 월 -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 오후 2시까지 상근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부상조하고 참여하여 건설한 한인회, 발전하는 한인사회를 만들도록 고민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락 드리겠습니다.  
고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다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 합니다.

1983년 5월

재무부장 박태호 드림

# 泰和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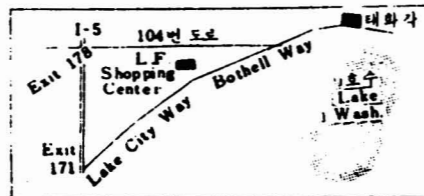
Restaurant  
MANDARINE CUISINE

● 한국식중화요리 ● 수타국수

영업시간 : 11a.m.~10p.m.(일~목)

11a.m.~11p.m.(금, 토)

주소 : 6312 Bothell Way N.E.  
Seattle, WA 98155



수타 국수로 유명한 태화각

485-4020

## 『교포사회 동정』

## 『청룡의 밤』 성료

아침은주 해병동지회(회장: 유 제인 예비역 소령)는 4월 9일 오후 6시부터 케이크시리 강당에서 신 30명 한인회장, 이 동립 한인회 이사장, 이 문수 총영사, 이 한중 예비 중령의 장교 출신 및 미해병대 대표 다수 그리고 동지회원 23쌍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제 5회 『청룡의 밤』을 열었다.

올해 3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을 기념하는 청룡의 밤은 아침은주 해병동지회가 매년 개최하는 연례 행사로 올해 다섯번째로 열렸다.

유 제인 워싱턴주 해병동지회장은 이날 『청룡의 밤』을 개최하는 인사말에서 "국민들의 믿음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해병동지회가 매년 4월에 비운의 조국전쟁과 월남전선에서 반공투사로 용감하게 죽어간 옛 전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범교포적 규모로 큰 잔치를 마련하여 왔으나, 불행히도 유례없는 경기불황으로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형편에서 올해는 순수한 우의동지회원들의 정성으로 조출하고 조용한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유회장은 『청룡의 밤』을 여는 뜻은 "비록 오랜전에 군복을 벗고 수만리 이역땅에서 이민생활에 여념은 없으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정부를 자기 생각나는대로 비방하여 위신을 추락시킴으로서 호시탐탐 헛점을 노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이롭게 함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니, 옛 선조들이 사랑수수밭에서 갠 고난을 겪으면서도 조국광복을 위하여 헌신했듯이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조국수호와 번영을 성취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해병동지회는 "모든면에서 교포사회의 모범이 될것을 물론 반공선에 선봉이 될것을 다지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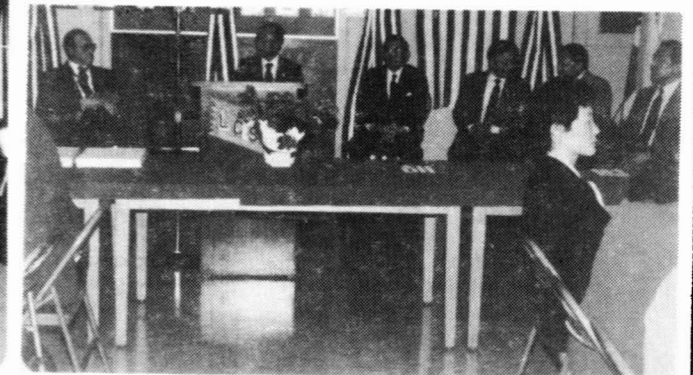
이날 『청룡의 밤』 행사는 1부의 의식을 끝내고 2부의 만찬및 무도회를 가지면서 11시까지 계속되었다.

## 워싱턴주 해병동지회 새임원진

1983년도 해병동지회 임원진이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다.

회장 : 유 제인 (771-4445)  
부회장: 박철고 (325-0718)  
          서영호 (763-1943)  
총무 : 이성호 (745-3983)  
재무 : 김기억 (767-7020)  
편집 : 김두익 (767-9381)  
체육 : 황봉준 (246-8468)  
섭외 : 김영수 (242-4504)

고문 : 이한중 (848-1776)  
          자문 : 김현길 (524-7776)  
          신호범 (778-1972)  
총무이사: 조성태 (523-4448)  
섭외이사: 김두영 (246-0971)  
감사 : 구수안 (762-7637)



『교포사회 행사안내』

정매인독창회

이화 여대 성악과 출신의 교포 성악가 정매인씨의 독창회가 6월 11일 (토) 오후 8시부터 Seattle Center play house 에서 열린다.

시애틀 중심가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인 성악가의 독창회가 열리게 된것은 정매인씨 개인은 물론, 우리 교포 모두의 자랑스런 일로 생각된다. 이번 독창회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해온 준비위원장 이수씨는 모든 준비가 손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계 각층으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고 있다고 하며 이번 독창회의 성과를 보아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능력있는 성악가들을 발굴하여 범 교포적으로 도약시 수준 높은 독창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전 카로마 중앙교회 지휘자였으며 교회 장로인 이수씨는 정매인씨의 음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정매인씨의 노래는 청중으로 하여금 완전히 자기 음악에 젖어들게 합니다. 깊은 영혼에 와서 부딪치는 감동이 있지요. 성량도 풍부하고, 높은 칸타도 선명하며, 폭이 넓으나 투박하지 않습니다. 그음 처리에도 무리가 없이 깨끗하고, 레크니에도 능숙합니다. 이번에 부를 17곡(한국 가곡 포함)의 노래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과 큰 기쁨을 줄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교포 성악가의 독창회만큼 모든 교포들의 관심이 크며 음악인들도 큰 관심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입장권(2불)은 예매하고 있으며 당일현장 구입도 가능하다고 한다.

소프라노

정매인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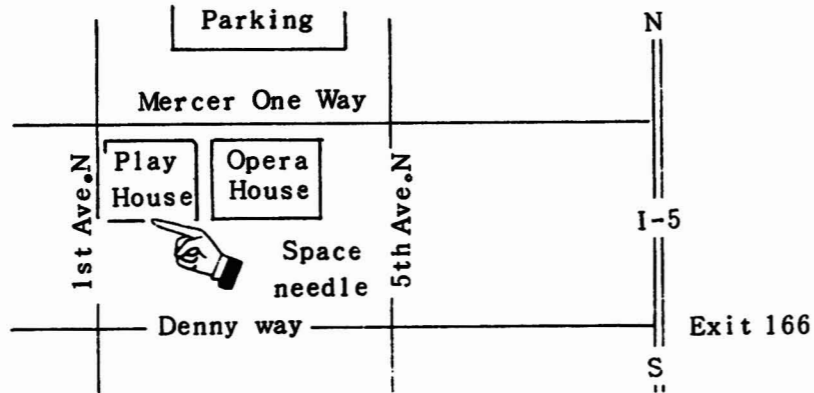
정매인씨

\* 피아노 반주

이혜연

\* FLUTE

ANNE HEDSTROM



일시 : 1983년 6월 11일 (토) 오후 8시  
 장소 : SEATTLE CENTER PLAY HOUSE (MERCER STREET. OPERA HOUSE 옆)  
 입장료 : \$ 2.00  
 \* 예매 및 당일 (700석 한정)  
 \* 문의전화 : 이수호 (762-2423) 윤한복 (367-4430)  
 ※ 10세 미만 어린이의 입장을 불허합니다.

『교포사회 동정』

김대중씨 강연회

한국의 재야 반정부 정치가인 김대중씨가 시애틀을 방문 4월 30일, 5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워싱턴 대학 내 케인홀 103호실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역시론 주 인권옹호 협회와 워싱턴 대학의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가 공동주최한 이 강연회의 첫날은 미국청중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둘째날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이 강연회에서 김대중씨는 한국은 "군사독재 체제"하에서 자유, 평등, 인권신장의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수도 없으며 은 국민의 여망인 남북통일도 성취할수 없기때문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민주군사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은 국민과 재외 교포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대중씨는 또한 이러한 민주화투쟁에 여러번 죽을 고비를 넘긴 자신이 "목숨을 내걸고" 앞장서겠으니 해외교포들도 따라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김대중씨는 현재 한국이 안고있는 모든 정치, 사회, 경제문제제가 오직 군사체제에서 오는것으로 이것만 분쇄되면 민주주의가 울수있다는 낙관론을 토대로한 주장을 펴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현 정부를 타도 함으로서 군사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강연했다.

특히 남북통일 문제에 관해서 김대중씨는 "남북통일이 안되고 있는것은 북한이 남한정부가 민주주의를 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할수 없다고 거부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의 김대중씨 강연회에는 각각 500명과 700명으로 추산되는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약 3시간동안 계속되었다.

K.P. 번역원

〈연방법원·이민국 인가〉

- 서류·책자 고급번역/작성 ●법정·이민국·각기관통역
- 사건 조사·처리 ●유능한 전문변호사 선정
- 이민·법률문제 해결보조 ●각종 상담

K.P. Translation Services

1600 N.E. 47th St. #18  
 Seattle, WA 98105

대표 : 박건홍  
 (206) 527-8094

이동립 이사장

한인회에

한인회관 건립기금

1만불기증

현 한인회 이사장 이동립씨는 고민들에게 한인회관 건축기금 모금에 적극참여하여 줄것을 호소 하면서 신호범 한인회장에게 1983년도 한인회관 매입토는 건축을 실현하도록 돕기위하여 1만불을 기증할것을 약속했다.

이동립 이사장은 현재 Renton Valley General Hospital 에서 마취외과도 근무하고 있다.

정연발 목사

한인회에

쌀 20가마 기탁

시애틀 중앙교회(담임 목사 : 정연발)에서는 지난 4월 도움이 필요한 고민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60세 회갑을 맞이하여 100파운드들이 쌀 20가마를 한인회에 기탁했다.

한인회에서는 6월중에 이 쌀을 도움이 필요한 고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고민들 가운데서 이웃동포중 곤궁한사정이 있는 분들을 알면 한인회에서 참고로 할수 있도록 한인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올림픽 후원회

준비위원회 결성

시애틀 지역 올림픽 후원회 결성을 위한 제 2차 발기회의가 4월 22일 오후 7시 30분에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모임에 참석한 총 14명의 임시의장에 임광희 박사, 서기에 김동수씨를 선출하고 회의록토의하고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할것을 결정, 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장을 다음과 같이 선임 하였다.

- 창립준비 위원회 위원장 김병섭씨
- 창립준비 위원회 부위원장 임광희 박사
- 창립준비 위원회 부위원장 윤학덕씨
- 창립준비 위원회 부위원장 신호범 박사

이날 모임에서는 또한 정식발기를 위한 준비기금으로 \$ 570.00을 모금했다.

# 『논단』

## 한인회 무용론에 대하여 —보람된 한인사회 건설을 위한 제언—

박건홍

바쁜 이면생활 가운데도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거의 항상 한인사회에 관한 얘기가 화제거리로 등장하고 이러한 저러니 의견은 나누다 보면 우리도 종종 자신도 모르게 열띤 논쟁으로 빠져든다.

수많은 한인사회 화제거리 가운데 한인회에 관한 얘기가 아마도 으뜸을 차지 할 것이다. 한인회장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구획을 개인적인 명가부여 시작하여 한인회란 어떤 단체이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조직이론과 당위론에 이르기까지 총해무진한 분석과 주장이 고환된다. 이러한 대화 가운데 중심치암게 나오는 주장은 "한인회는 필요없다"고 하는 한인회 무용론이다.

한인회 무용론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이 구구하지만 요점을 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한인회란 볼테르의 권력의식을 주장하는 단체다. 그렇지 않아도 모국에서 "권력중"에 염증을 느끼고 이단화를 자유롭게 삼켜고 하는 마당에 한인회니 뭐니 해가지고 회장으로 뽑힌 사람은 마치 권력자처럼 행세 하려고 하는 것이 탐사 매시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한인회는 아예 없어야 한다.

2) 한인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려면 대다수로 부러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고립된 무관심 속에서 겨우 매어엿 또는 심하면 7, 80명의 지지자를 받아 적어도 1만여명쯤 대표한다는 회장이 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동거나 동력이 결핍된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한인회는 이런 지도자 밑에서 정처없이 표류하기가 임부다.

능력이 있어보이는 사람들은 한인사회에 관련되는 것을 꺼리고 개인생활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빈곤이 한인사회의 길을 저하시켜 왔는데, 이런 상태속에서 한인회란 없는 것만도 못하다.

3) 지속적인 활력을 가져야 할 조직체로서 한인회가 어떻게 일관성을 보여줄 것이 없다. 1년에 한번씩 선거로 뽑힌 회장은 처음에는 포부라 희망을 가지고 떠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임기가 끝나기만 고대하다가, 다음 회장이 나오기도 전에 손을 들고 다시는 한인회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사략져 버리는 예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세워진 권회장이 했던 일을 계승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또 새일을 만들어 과거와 관련하여 잠시 주춧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마친채 몸을 빼어나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인회란 고작해야 "한해살이 잠초"에 불과한데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4) 한인회를 움직여 나가려면 예산도 세어야 하고 많은 돈도 써야 하는데 그런 돈은 어디서 항상 구하겠는가? 한인회가 회비를 걷지만 내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회비로 한인회를 운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몇몇 인사와 염소들로부터 약간의 기부금을 꺼내 다른 화장단등 책임은 많은 사람이 호주머니를 풀어 경비를 충당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을 영구히 되풀이 할 수 없다. 이처럼 한인회가 재원이 없어 일용할 수 없는데 그런 단체는 있으나 마나다.

5) 한인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한인회의 목적에 대해서 서로의 견해가 일치되어 본 일도 없고 임지될 수도 없는 "이견의 경주" 상태에서 내세울 엄분이 없다. 흔히 말하는 진목도모는 한인회가 없어도 교회, 동창회, 경노회 같은데서 잠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워 어떤 큰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한인회를 움직이는 열사람의 개인적 생각에서 나온 허구 임 뿐이다.

이상은 필자가 그동안 15년간 이곳에 살면서 많은 동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들은 한인회 무용론의 근거를 필자 나름대로 간추려 요약해본 것이다. 필자는 우선 이런 여러가지 한인회 거부이유에 대한 소견을 밝히기 전에 "한인회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불필요하고 비논리적인 공론임을 지적하고 싶다. 그 이유는 "한인회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아무리 가하게 들리더라도 한인들이 모여 사는 어느 곳에 서나 어떤 형태로든지 한인회는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없는 곳에서는 누가 떠날 때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필요없다"는 말을 가지고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국민하고 때 때 부러 괴에 못이 밟히게 들 어온 말이지만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를 둔 진리이다. 인간은 역사의 어느 시점, 어느 곳에 살았는지 간에 여러명이 모여면 사회를 형성하

고 정치적 행위를 해왔고 또 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한인회같은 것이 조직되는 것은 종된 선, 인간에 한인들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본능의 법도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한인회라는 그 한국인들의 정치행위는 다른 나라 또는 사회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하고 모양이나 방식에 있어서 독특하게 다른 점들이 있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사실상 한인회문제는 우리의 독특한 정치행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독특한 정치행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한인회문제는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개인되어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때에 우리는 자신의 행동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인사회에 표출되는 현상만을 가지고 할가할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인회에 관한 논란은 한인회의 유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한인회와의 본질적 관계를 어떻게 갖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 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인회 무용론을 문과고대도 "한인회 는 필요 없다"는 단정적인 부정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우리 한인회 사회에 존재하는 한인회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받아 드리고 싶다. 그럼 때에야 비로소 소위 "한인회 무용론"은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뜻에서 외에 엄격한 여러가지 주장들 다룬 각도에서 다시 정리해보면서 필자의 소견을 밝히고 장래 한인사회 건설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덧붙여 지 한다.

첫째 : 한인회가 권력의식을 주장한다는 주장은 비판의 대상은 잘못 선정하면서 나온 발상이다. 고 사회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떤 한인회장은 무슨 "큰 감수나 쓴 것처럼" 권력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심지어는 모국의 권력구조에 진출하는 법으로도 삼으려한다는 얘기를 들어왔고 또 그것이 사적인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엄밀히 말해서 한인회라는 기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한인회장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더 큰 영인이 있다. 참다운 지도적 자들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한인회장이 되었을 때에는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 그러므로 우리는 한인회장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단체란 인간이 조직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활동이나 스타일이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서 좌우된다.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한인회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만큼 그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인회장단 선거때와 같은 지도자 선출과정에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되고 후보자들의 자질문제를 여러모로 살펴본 후 감정에서 우치지 않은 공정한 내 의사를 전담하는 표를 찍어야 한다. 흔히 한인회에 대하여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참여도가 약한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서 참여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평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 귀국권 참여를 통해서 좋은 인물도 뽑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한인회가 "1년생장초"가 되어버리는 폐단도 막을 수 있다. 한인회장이 임기도 끝나기 전에 저지르거나 하는 현상은 역시 참여의 빈곤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이 뽑혔다 하더라도 참여를 통해서 그를 계속 임하게 만들어 주는 필요는 없는 한 사람이 혼자 떠날 수도 있을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사, 임원들 간부가 되어 함께 임해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버셔도 처음 시카한 임을 끝까지 믿고 나가고 못 마친 임은 다음번 회장에 넘겨줄 수 있을 때 한인회가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말은 무조건 맹목적 협력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진정한 참여란 비판까지도 포함된다. 한인회장이 무엇인가 부러하게 또는 배드지 못하게 임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비판을 가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참여의 또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다. 참여에는 또한 성실성과 건실성을 가지고 사사건건히 사비를 거는 행위만과 임이 실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면적으로 소외된 위치에서 무조건 불평하는 행위와 건체의 견제를 위한 비판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넷째 : 떠돌이 되지 않던 역시 참여를 통해서 한인회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한인회장이 라던가 몇몇 소수의 인사들로 부러 다액의 기부금을 받아 한인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양면일 수 밖에 없었지만, 한인회가 영속성을 갖는 단계로 발전하려면 개인에 의존하지 않는 영속성 재원이 확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주 들리는 말이지만 시에를 지역 1만여명의 고가운데 3분의 1만이라도 매년회비를 납부해준다면 매년 한인회의 기본적인 운영비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한인회장을 하면서 "10년살 장초" 내놓고 해 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 가능하겠는가를 따지기 전에 돈이 있어야만 고민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관념을 깨우는 의의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 한인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

는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돈을 기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또 권유함으로써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권장할수 있는 일이다. 또한 한인회가 유모봉사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한인회의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 바자회, 음식판매, 유료행사사회등 실현가능한 수익성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금을 확보할수 있을것이다. 아무튼 재정문제가 고포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하나의 커다란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인회를 못한다는 것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길만을 찾는 때의 어려움을 앞세우는 회피책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인회가 성실하고 유능한 지도자 밑에서 착실하게 일을 잘 해나간다고 하면 고민사회로부터 물질적협조도 많이 얻을수 있을것이다.

다섯째 : 그런데 지금까지 모두 방법론만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한인회는 무엇 때문에 있어야하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한인회의 존재이유와 목적은 뚜렷하다. 흔히 말하는 친목도모, 봉사활동등은 다 아는 얘기니까 접어두고 한인회가 있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인들의 공통적인 이익과 권익을 확보하고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위한 활동을 조직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져야 될 이유를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서 출발점을 찾아보자. 분명히 우리는 커다란 미국사회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뚜렷히 구별되는 한인이라는 하나의 인종·문화집단에 소속 되어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느낌자체가 곧 우리에게 남과 우리를 구별하는 자아의식이 있다는 증거이다. "다르다"는 말은 논, 코, 피부색깔등 신체구조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행동양식등 문화적 차이를 다함축하는 포괄적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남들과 다른 우리 한인들이 미국사회에서 하나의 독특한 성격을 지닌 집단에 소속되어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때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의지나 욕구를 최대한도로 실현하고자 노력해야할 필요가 생김은 당연하다. 만약 이런 욕구가 없을때 또는 자신이 미국사회에서 남들과 행동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마음편히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애어 이런 호른을 더 이상 계속 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한인단체의 회장이 어떤 고민에게 그 단체에 가입해 줄것을 요청했더니 그 고민이 "나는 미국시민입니다. 미국시민이 한인단체에 가입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고 또 몇몇 또한 한국 말로 대답하더라는 얘기를 들은일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권이 없지만 우선 한인사회 문제를 함께 얘기할수 있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여기서는 논의로 삼아야 할것 같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곳 고포사회의 구성원 99%는 스스로를 한인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감정과 같은 정서를 가진 하나의 공동운명체에 속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집단적 요구를 공동적으로 실현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공동적으로 실현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새 이민자 집단으로서 한인고포사회가 미국사회안에서 매우 불리한처지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언어장애, 문화장벽, 미국의 사회, 경제, 법률체계에 대한 피피감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한인들을 미국사회가 인류애적 동정심을 가지고 특별대우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살기도 결심한 이상 이 사회에 적응하고 배울 것은 모두 배워나가야 되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체험하는 인종적 차별대우, 우리의 사고·행동양식에 대한 편견, 우리의 자존심에 대한 위협등의 정신적 피해, 또한 미국사회의 체계와 운운을 모르는 약자의 처지에 있기 때문에 받는 무수한 물질적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다. 적어도 우리가 남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외적으로 우리를 알리는 각종 행사와 활동이 있어야 겠고 우리의 특수한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주장과 논쟁도 있어야 한다. 이런것을 하려면 한인들끼리의 친목과 화합은 두말 할것도 없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집단외사를 형성하고 조직화 하여야 할것이다. 유명한 「이철수 사건」의 결말은 한인들의 이러한 집단적 공동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웅변적으로 설명해 주고있다.

그러므로 한인회는 하나의 포괄적인 단체로 해당지역 고민사회의 의사를 끌고루 집약하고 반영하는 능동적 역할을 할수 있는 위치로 발전해야 한다. 고민사회에 산재하는 각종 단체들은 그들의 국부적 이익과 특수한 목적을 최대한도로 성취하도록 노력하면서도 한인회와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전체 커뮤니티의 이익에 공헌 할수 있는 자세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한인회가 각 단체들을 산하기관으로 수직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반대로 한인회가 어떠한 특수단체의 힘에 의존하는것도 전체적 균형을 위해서 좋지 않다. 각 종교, 사회단체들은 그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한인회와는 횡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는데 적극 참여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인것 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일은 말로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정말 어렵다. 대부분 고달픈 생활을 하고있는 한인들이 "나살기도

바쁘게 한인회에 까지 관심을 가질수 없다"는 반응은 흔히있는 사실이다. 또한 고포사회내의 사회, 종교단체중 더러는 너무나 자체의 한정된 목적을 성취하는 일만을 강조함으로써 커뮤니티 전체를 위한 사업에 냉담한 경우도 많다. 또한가치 어찌든 문제는 우리 고포사회의 성격과 구조자체가 체계적 활동을 이루는 것을 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민사회란 한 국가사회와는 달리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힘의 억력으로 성립되는 질서와 체계가 결여되어 있고오직 문화적 질서와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여 체계를 세울수밖에 없는 엉성한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정신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질서관념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한 강한 조직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인고민들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사회문화적 과거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한 상태에서 세로대하는 미국사회의 질서에 매혹되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가 내세울 중심적 가치구조를 만들기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람직한 한인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어떤 모든 장애를 넘어설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참으면서 노력해야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앞서말했듯이 현재우리가 공동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민자로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멀리는 우리가 세우는 이민사회가 장래 후손들이 미국

사회에서 힘차게 뻗어 갈 여권이 될수있는 보람된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에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인사회를 강하게 구축하여야 하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보편적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이곳에 가지고 와서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미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있다. 미국사회는 현대 세계속에서 과거의 로마제국처럼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침단을 상징하고 있기에 모든 나라가 그 위용과 지력을 선망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제국이 그랬듯이 미국사회의 정신적 지주 가운데 일부는 쇠퇴하고 부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때 우리는 밖의 라 문화권에서 들어온 신참자로서 참신한 안목과 에너지를 가지고 남은 부분에 새살을 들게 하는 힘이 될수도 있다. 미국은 처음부터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여러 인종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섞여 항상 새로운 힘을 창조 해 나간다는 이념을 가진 사회이다. 그것은 위대한 이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늦게 왔어도 새 이민 집단으로서 이런 이념의 구현을 위해 남들과 대등한 위치로 지위를 향상한후 남들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보람된 구실을 하게 될때 우리도 인간사회의 숭고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게 될 것이다.

(필자 : 본지 편집인)

## 보혜사 한방원

保 惠 師 漢 方 院

●보약 ●녹용 ●우황청심환 ●첩약

#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희소식!!

수십년된 치질도 아프지 않게 치료됩니다.

- 사단법인 대한침구사협회원
- 대한침구사 협회장 표창장 수령
- 미국가주 침술사 면허소지

전화예약 바랍니다.  
**보혜사 한방원 최창하**  
762-8566 762-6493

# 762-8566 762-6493

한국 입양아동 양부모회에서 알리는 말씀

한국 입양 아동 양부모회에는 본 한인회에 다음 같은 행사에 한인 커뮤니티가 참여 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요청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원본은 영어로 되어있으므로 영문 페이지에 실리고 번역을 여기에 실립니다. 관심있는 고민들께서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집부)

"저희들의 (입양) 아동들에게 한국을 가르치고 한국의 전통에 대한 공저를 심어주기 위하여 저희 한국 입양 아동 양부모회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6일간 오전 10시 부터 오후 3시까지 바벨에 위치한 제일 루터란 교회 (First Lutheran Church) 에서 한국문화 캠프를 개최하려 합니다. 이 캠프는 유치원 부터 6학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캠프 참가비는 한가족의 첫째 아동에게 \$25, 둘째 아동에게 \$14, 셋째에게는 \$12.50씩 됩니다.

"저희들은 이 행사에 한국 커뮤니티에서 아동을 참가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중 자원 봉사자들도 나오시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인 봉사자들의 가족들은 아동들에게는 참가비를 감액 해드릴 뿐만 아니라 유아나 프리스쿨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로 베이비 시팅도 해드립니다. 이 캠프의 교과 내용은 한국문화, 언어, 공작, 음악, 게임, 무용, 요리 및 레크리에이션도 포함됩니다. 위의 각 분야를 도와주실 고사 및 고사 보조원을 필요로 합니다. 캠프에 사용될 자료를 기증해 주실분이 있으면 기꺼이 받아 드리겠습니다. 한인으로서 비즈니스하시는 분들중 양부모 가족들과 앞으로 거래가능 업종이 있으면 이의 명단을 인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캠프 기간중 봉사원 자원하시는 분 또는 업체를 소개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샌디 맥 씨에게 전화 번호 481-5660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에 관한 문의는 애니타 헌트리 (Anita Huntley, 14249 - 111th N.E. Kirkland, Wa 98033, 전화-488-0187)로 서신을 보내 주시기나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를 위한 다음번 계획 회의는 지니 맥

햄 (Jeanie Beckham) 씨 님, 16244 N.E. 27th, Bellevue (전화 : 883-4824) 에서 5월 12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립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희 선생 추모 장학회에서 알리는 말씀

이 창희 기념 장학회 이사회에서는 1983년 학년도에 \$500장학금과 \$300장학금을 각각 3명씩 총 6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장학회는 이곳 한인사회 창립자중 한분 이시었던 이 창희 선생님의 뜻을 추모하기 위하여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고민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학생들 가운데 전공 분야에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소정의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983년 11월 10일까지 본 장학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1983년 11월 25일 발표 될 것입니다. 신청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요청하실 곳 : CHANG HEI LEE memorial Scholarship Fund  
2728 N.E. 100th street  
Seattle, Wa 98125

이 창희 기념 장학회  
이사 일동

조기 축구회에서 알리는 말씀

시애틀 조기 축구회 (회장: 김 건량)는 다음과 같이 제 2회 고민단체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많은 고민단체들의 참가를 바란다고 한다.

일시 : 1983년 6월 11일 (토요일)  
장소 : 우드랜드 공원 (Woodland Park)  
시상 : 1등 - 상금 및 트로피  
2등 - 상금 및 트로피  
3등 - 상금 및 트로피

신청접수 및 문의 : 전화 - 622-7371  
527-1683 (오후 6시 이후)  
신청마감일 : 1983년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참가비 : \$ 50.00



시애틀 · 워싱턴주한인회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206) 362-4500

시애틀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1125 UA BLDG. - 6TH AVE.  
(206) 682-0132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  
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WASHINGTON STATE  
584 INDUSTRY DRIVE, SEATTLE, WA 98188  
P.O. BOX 58611, SEATTLE, WA 98188 (206) 575-1320

대한무역진흥공사 시애틀무역관  
900 - 4TH AVE. #1245  
SEATTLE, WA 98101  
(206) 623-3588 / 9

워싱턴주한인기술사협회  
KOREAN TECHNICAL ASSOCIATION  
2611 - 125TH ST. N.E.  
SEATTLE, WA 98125  
RES: (206) 937-5291

한국의환은행시애틀지점  
KOREA EXCHANGE BANK  
SEATTLE BRANCH  
600 UNIVERSITY STREET  
SEATTLE, WA 98101  
(206) 622-8721

한국일보시애틀지사  
THE HANKOOK ILBO  
7320 - 20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5-9222

중앙일보시애틀지사  
THE JEONG ANG DAILY NEWS  
2684 S.W. 333RD PLACE  
FEDERAL WAY, WA (8003)  
FEDERAL WAY, WA 98003  
(206) 838-3155 • 927-5915

동아일보시애틀지사  
THE DONG H IL BO  
(206) 524 ~ 5999

(주) 호성물산 (Unipac International, Inc.)  
HYOSUNG AMERICA CORPORATION  
SEA-TAC OFFICE CENTER  
TOWER 1, SUITE 412  
18000 PACIFIC HIGHWAY SOUTH  
SEATTLE, WA 98188 (206) 244-2804

현대상사(주)  
HYUNDAI CORPORATION  
FOURTH & BLANCHARD BLDG. #270  
2101 - FOURTH AVENUE  
SEATTLE, WA 98121  
(206) 682-1698 / 9

(주) 삼미사  
SAIMISA AMERICA CORPORATION  
1111 THIRD AVENUE BUILDING  
SEATTLE, WA 98101  
(206) 623-4426

신흥목재(주)  
SHIN HUNG LUMBER COMPANY, LTD.  
5272 PRAEKNESS  
WEST LINN, OREGON 97068  
(503) 655-7652

(주) 쌍용  
SSANGYONG CORPORATION  
FOURTH & BLANCHARD BUILDING  
SUITE 1470  
2101 - FOURTH AVENUE  
SEATTLE, WA 98121 (206) 623-4307

대한선주주식회사  
KOREA SHIPPING AMERICA  
2121 - FOURTH AVENUE  
SUITE #1520  
SEATTLE, WA 98121  
(206) 625-1960

(주) 한진해운  
HANJIN CONTAINER LINES, LTD.  
KOREAN FLAG SERVICE  
157 YESLER WAY  
SEATTLE, WA 98104  
(206) 447-9422

**종교**




<p><b>씨애틀 한인천주교회</b> 담임신부 : Richard Parle</p> <p>3939 13th Ave. South Federal Way, WA 98003 (206) 838-5924</p>	<p><b>임마누엘 장로교회</b> 담임목사 : 송찬우</p> <p>22905 63rd St. W. Mtkterr, WA 98043 (206) 776-5749</p>
<p><b>워싱턴 한인루터교회</b> 담임목사 : 박기영</p> <p>WASHINGTON KOREAN LUTHERAN CHURCH 740 SOUTH 128TH STREET SEATTLE, WA 98168 (206) 243-8555, 242-6600 (CHURCH OFF.), 242-6607</p>	<p><b>씨애틀 한인 침례교회</b> 담임목사 : 정하경</p> <p>KOREAN BAPTIST CHURCH 1306 N 165TH ST. SEATTLE, WA 98133 (206) 542-4391</p>
<p><b>한인 제일 감리교회</b> 담임목사 : 이창수</p> <p>425 N.E. 95TH SEATTLE, WA 98115 (206) 367-2178</p>	<p><b>씨애틀 성은교회</b> 담임목사 : 성윤경</p> <p>4401 2ND AVE. N.E. SEATTLE, WA 98105 524-9210</p>
<p><b>한국 뱃엘 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영규</p> <p>BOTHE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358 3RD AVE. N.W. SEATTLE, WA 98177</p>	<p><b>씨애틀 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성목</p> <p>11508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25 (206) 365-5333, 364-5394</p>
<p><b>씨애틀 한인 연합감리교회</b> 담임목사 : 김종원</p> <p>1415 N.E. 43RD ST. SEATTLE, WA (206) 226-7864, 632-5163</p>	<p><b>웨더럴 웨이 에덴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성권</p> <p>1829 S. 308TH ST. FEDERAL WAY, WA (206) 941-9684, 839-6744</p>
<p><b>렌튼 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경원</p> <p>3031 N.E. 10TH ST. RENTON, WA (206) 226-2703</p>	<p><b>한인연합장로교회</b> 담임목사 : 박영희</p> <p>1315 N. 160TH ST. SEATTLE, WA 367-5858, 774-1885</p>
<p><b>씨애틀 한인형제교회</b> 담임목사 : 최용걸</p> <p>7TH &amp; SPRING 365-6691, 367-0183</p>	<p><b>에베렛 한인 베다니 교회</b> 담임목사 : 최창호</p> <p>2626 CEDAR EVERETT, WA 98201 (206) 355 - 6377</p>
<p><b>성복음 성결교회</b> 담임목사 : 윤한두</p> <p>14537 - 30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367-1490</p>	<p><b>한인 복음교회</b> 담임목사 : 이영준</p> <p>811 5TH &amp; COLUMBIA ST. SEATTLE, WA 98101 (206)363-6789</p>

<p><b>씨애틀 중앙 장로교회</b> 담임목사 : 정연발</p> <p>9421 18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 763-8952</p>	<p><b>한인 선교교회</b> 담임목사 : 송천호</p> <p>515 South 312 Street Federal Way, WA. 98003 838-4599-922-1611</p>
<p><b>씨애틀 한인 안식일교회</b> 담임목사 : 유재상</p> <p>300 W. SAAR ST. KENT, WA 854-1125, 8490</p>	<p><b>순복음 씨애틀교회</b> 담임목사 : 박성수</p> <p>1632 BROADWAY AVE. P.O. BOX 20305 (206) 546-1612</p>
<p><b>씨애틀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상구</p> <p>2728 N.E. 100THST. SEATTLE, WA 98125 367-4561, 523-2728</p>	<p><b>에베렛 한인교회</b> 담임목사 : 고필균</p> <p>EVERETT OF KOREAN CHURCH 1ST CASINO RD. EVERETT, WA 98204 (206) 353-4143</p>
<p><b>씨애틀 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 최태원</p> <p>1215 THOMAS ST. SEATTLE, WA 98109 (206) 242-0315</p>	<p><b>서부 영생교회</b> 담임목사 : 한상국</p> <p>9252 - 16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 767-0693</p>
<p><b>서부 씨애틀 한인교회</b> 담임목사 : 이명택</p> <p>CHURCH 3825 AVALON WAY S.W. SEATTLE, WA 98126 (206) 932-2553</p>	<p><b>워싱턴 선교 중앙교회</b> 담임목사 : 박 다니엘</p> <p>8208-18th Ave. N.E. Seattle 776-1850.</p>
<p><b>양복점 · 양장점</b></p>	<p><b>박 글라라 의상실</b> 절개식 특수재단 · 개인지도합 939 N - 182nd St. SEATTLE, WA 98133 (206) 542-7855, 775-8923</p>
<p><b>장씨양복점 및 세탁</b></p> <p>20005 HWY. 99 LYNNWOOD, WA (206) 775-3222</p>	<p><b>NEW MODE TAILOR SHOP</b></p> <p>9828 16TH AVE. S.W. Mr. &amp; Mrs. CHUNG SEATTLE, WA 98106 (206)763-8333</p>
<p><b>핑키 양장점</b></p> <p>PINKY DRESS MAKING 9741 HOLMAN RD. N.W. SEATTLE, WA 98117 (206) 874-1624</p>	<p><b>A - ONE 양복점</b></p> <p>10307 Bridgeport Way S.W. Tacoma, WA (206) 581 - 4451</p>




### 식품점

<b>그랜드식품</b> 8512 - 20TH N.E. SEATTLE, WA 98115 (206) 525-8334	<b>아로라식품</b> 16300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206) 542-9489 • 6577
<b>아줌마식품</b> 31260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06) 941-1123	<b>오대양식품</b>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WA (206) 363-6850 • 365-9844
<b>장미상회</b> 1414 SO. 324TH ST. FEDERAL WAY, WA 98003 (206) 941-8144	<b>제일식품</b> 21405 HWY 99 #A LYNNWOOD, WA 98036 (206) 774-4103
<b>중앙식품</b> 9641 - 15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 762-5620	<b>켄트상회</b> 23633 - 104TH AVE. S.E. KENT, WA 98031 (206) 852-8388
<b>한국식품</b> 514 - 6TH AVE. S. SEATTLE, WA 98104 (206) 682-2992	<b>현대식품</b> 10402 - 16TH AVE. S.W. SEATTLE, WA 98146 (206) 762-4792
 <b>선물 옷집</b> <b>테레비</b>	<b>킹 테레비·비디오</b> 504 S. KING ST. SEATTLE, WA 98104 (206) 624-9844 624-9815, 747-7234
<b>오로라선물센터</b> 14107 AURORA AVE. (206) 362-8617, 454-2087	<b>아폴로 테레비 비디오</b> 916 N. 160th St. Seattle (Sears 맞은편) 546-4222(시애틀) 531-6370(타코마)
<b>청바지센터 JEANS GALORE 525-3145</b> ▪ 유명패션 Jean, 각종 작업복 및 고급유명품 ▪ 귀국선물용, 품질보장, 최저가격보장 ▪ 성인, 어린이용 다량취급. 6410 Roosevelt way NE	<b>신신 선물센터</b> 8518 SO. TACOMA WAY (206) 582-2975 시애틀 622-8552



### 사진인쇄

<b>뉴모드 인쇄소</b> 6433 SO. TACOMA WAY TACOMA, WA (206) 475-74299	<b>부림인쇄</b> <b>BRIM PRESS</b> 450 S.W. 153RD SEATTLE, WA 98199 (206) 433-8811
<b>쇼어라인 그래픽스</b> 3008 N.E. 127TH ST. LAKE CITY WAY, WA (206) 364-6632	<b>익스프레스 카피·프린트</b> <b>EXPRESS COPY &amp; PRINT</b> 8415 GREENWOOD AVE. N. SEATTLE, WA (206) 789-7272
<b>탑 프린트</b> 5907 - 196th S. W. LYNN WOOD, WA 98036 (206) 775-7667	<b>하바하바 사진관</b>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206) 475-6226
 <b>보험</b>	<b>정문언보험 FARMERS INSURANCE</b> 9525 AURORA AVE. N. SEATTLE, WA 98103 (206) 523-9111 • (206) 588-0611
<b>강성국종합보험</b> <b>EQUITABLE INSURANCE</b> (206) 588-3112 (TAC) (206) 624-8380 (SEA)	<b>안창영종합보험</b> 메트로 폴리탄 종합보험 사무실 : 827 ~ 0347 집 : 431 ~ 9192
<b>김철준보험</b> NEW YORK LIFE SEA: 546-6586 TAC: 588-0333 RES: 367-1534	<b>박범신종합보험</b> <b>METROPOLITAN INSURANCE</b> (206) 455-0650 (SEA) (206) 367-2144 (RES) (206) 588-0333 (TAC)
<b>이형석종합보험</b> <b>PRUDENTIAL INSURANCE</b> (206) 226-6151 (RES) (206) 285-3151 (BUS)	<b>최영세보험</b> <b>EQUITABLE INSURANCE</b> (206) 624-8380 (SEA) (206) 475-5353(TAC) RES: 745-6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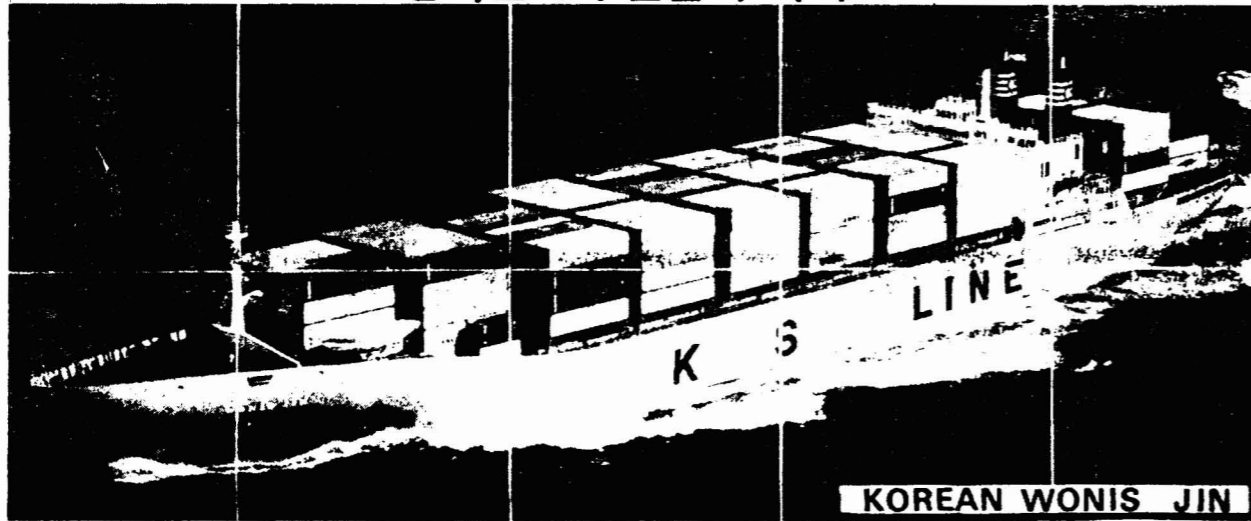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한국해운의 기수

# K.S. LINE

## 미주항로 최대의 18척 운항개시

정확한 1주일간격 서비스



32년 역사를 가진 국적선사 K. S. LINE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 5월부터 기존 극동·미동해안 항로를 11척 선대로 대폭증가하고 극동·미 서해안 전역을 6일 간격으로 서비스하는 서해안 특별 서비스를 개설하여 총 18척의 태평양항로 최대의 선대로 하주 여러분께 편의를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전의 협조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극동및 미서해안 특급서비스

- 투입선박수 : 풀 컨테이너선 7척
- 항 차 간격 : 6일
- 부산·시애틀항해일수 : 17일
- 기항지 : 한국·일본·대만·홍콩·동남아전역  
미서해안전역·중서부및 GULF 지역

### 극동및 미동해안 서비스

- 투입선박수 : 풀컨테이너선 11척
- 항 차 간격 : 7일
- 부산·뉴욕항해일수 : 27일
- 기항지 : 한국·일본·대만·홍콩·동남아전역  
미동해안및 EAST CANADA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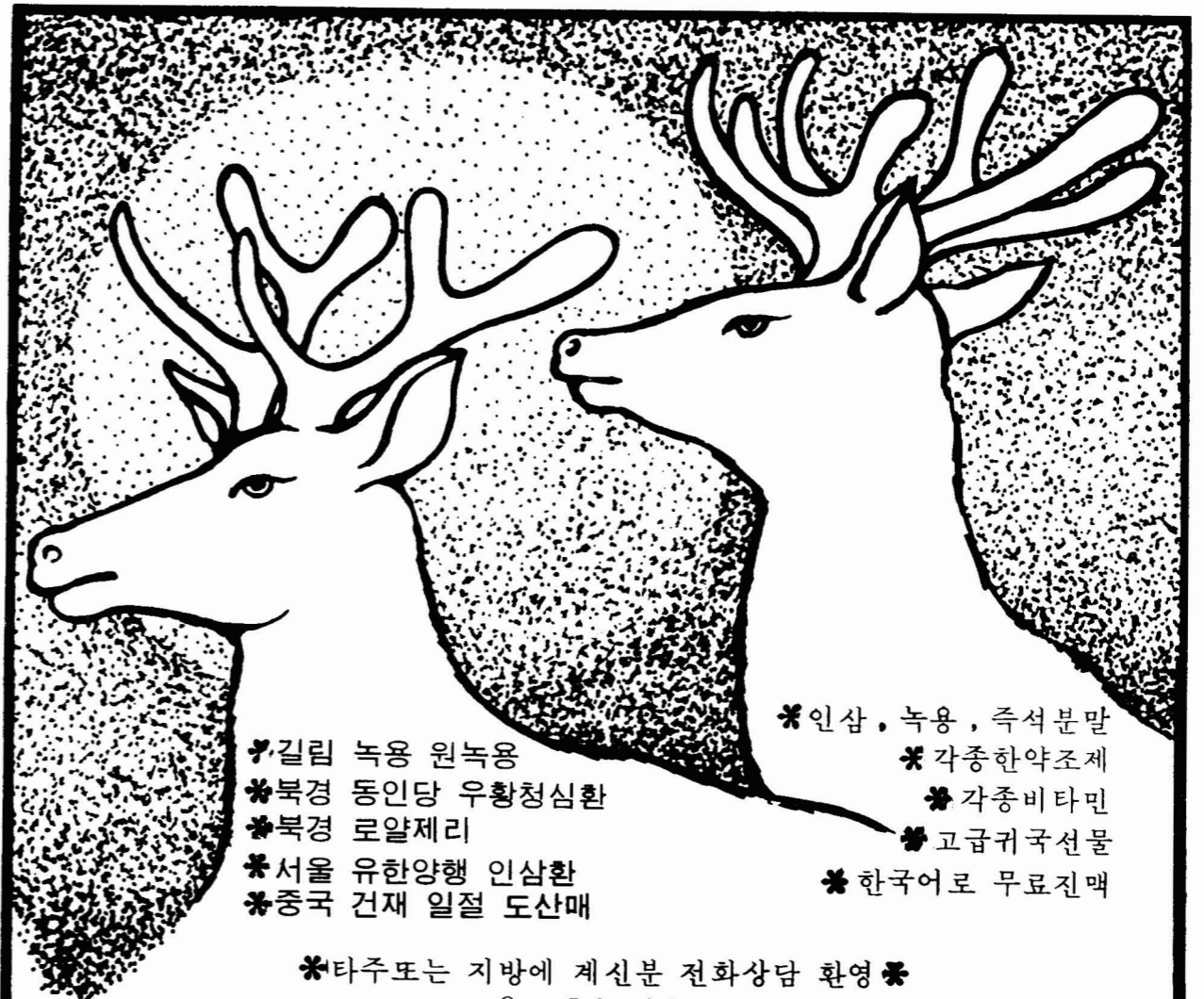


##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2121 4th Ave. #1520 SEATTLE, WA 98121

(206) 625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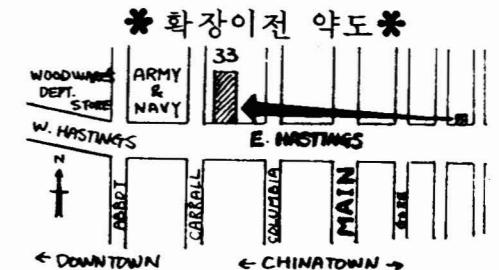
- \*길립 녹용 원녹용
- \*북경 동인당 우황청심환
- \*북경 로알제리
- \*서울 유한양행 인삼환
- \*중국 건재 일절 도산매

- \*인삼, 녹용, 즉석분말
- \* 각종한약조제
- \* 각종비타민
- \* 고급귀국선물
- \* 한국어로 무료진맥

\*타주또는 지방에 제신분 전화상담 환영\*

•Open 7 days/w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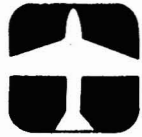
진영찬 한의사  
한국태생 중국인 2세  
서울화교학교 졸업  
국민대학교 졸업  
한약방 30년 경력  
현 B.C. 침구협회심사위원  
현 밴쿠버 초야사 협회회장



**Canada Ginseng Company, Ltd.**  
33 E. HASTINGS ST. VAN. B.C., CANADA. V6A 1M9

☎ (604) 681-9888 255-7033 (B) 922-4577 (R)

# 진한약방 확장이전



여행사

김 여행사 KIM'S TRAVEL SERVICE #619 LLOYD BLDG. 603 STEWART ST. SEATTLE, WA 98101 (206) 642-2227 / 8	가나안 여행사 CANAAN TRAVEL SERVICE #107 - 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206) 624-6461
대한여행사 KOREA TOURIST BUREAU DANA PLAZA SUITE #5 31260 PACIFIC HWY. SO. FEDERAL WAY, WA 98003 TACOMA (206) 952-5595 SEATTLE (206) 941-8866	장 여행사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206) 523-7057
동서여행사 EAST WEST TRAVEL SERVICE SECURITIES BLDG. #635 SEATTLE, WA 98101 (206) 623-2157 / 8 367-1935	킹 여행사 KING TRAVEL AGENCY 504 S. KING ST. SEATTLE, WA 98104 (206) 624-9844
태평양여행사 PACIFIC TRAVEL SERVICE 5649 - 17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 767-7390	타코마 한국여행사 11222 BRIDGEPORT WAY S.W. TACOMA, WA 98499 (206) 588-0333 / 7788
한국여행사 KOREA TRAVEL SERVICE 2636 2ND AVE. SEATTLE, WA 98121 (206) 623-9290	오로라 여행사 AURORA TRAVEL 14109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206) 367-5300
꽃집 서점 피아노	스튜디오 꽃집 4333 E. MADISON SEATTLE, WA 98112 (206) 325-5032, 367-1534
장미 꽃집 PACIFIC ROSEHOUSE 11812 PACIFIC AVE. TACOMA, WA (206) 531-8408	YANG'S 묘목및 씨앗 Nursery & Landscaping Gig Harbor 857-4073
세계 피아노사 YAMAHA 776-9610 365-5540	한국서적 11101 PACIFIC HWY S.W. TACOMA, WA (206) 584-8292



부동산

김수잔 부동산 BRETON'S PROPERTIES, INC. 6100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15 BUS: 524-3900 RES: 392-8535	김종구 부동산 WEST COAST HOMES 367-0655, 362-8370
김현중 부동산 1809 - 214th S.W. LYNN WOOD, WA 98036 774-7828, 774-3839	김병관 CEHTURY 21 부동산 (BUS) 363-8509 (RES) 745-1367
노순열 부동산 622-6385 546-1648 542-7977	노명건 부동산 VR BUSINESS BROKERS (206) 774-5200 1-568-5551, 1-337-2480
동서 부동산 EAST-WEST BROKERS 8624 PACIFIC AVE. #12 TACOMA, WA 98444 (206) 537-3214	CEHTURY 부동산 23421 MILITARY Rd So. KENT, WA 98031 878-1840, 838-4263
신창호 부동산 367-1757 778-1186	신운하·김이순 부동산 365-6535 363-8500
이양남 부동산 (BUS) 246-8033 (RES) 246-5386	오화실 부동산 455-9571, 344-8370
장국경 부동산 WASHINGTON REALTY (206) 244-9114 (206) 838-3324	채태용 부동산 BROKER 588-4243, 582-5990 584-2700
황수철 부동산 NORTHEND 및 BELLEVUE 지역 522 - 7566	각종 영문 및 한글 인쇄 <b>富林印刷</b> (206) 433-8811

**병원 한방**

<b>엄도승 산부인과</b> KENT MEDICAL CENTER INC., P.S. 222 N. STATE KENT, WA (206) 872-3400, 631-5863	<b>로명재 산부인과</b> 201 N. DIVISION ST. AUBURN, WA 98002 (2065) 833-2580	1711 324TH PL. FEDERAL WAY, WA 98003 (2065) 927-8440
<b>이창준 산부인과</b> 10109 PLAZA DR. S.W. TACOMA, WA 98499 (206) 584-4355 / 4357	<b>오덕주 산부인과</b> 23RD AVE. S.W. & MERIDIAN SO. PUYALLUP, WA 98371 (206) 848-4453	1624 SO. "I" ST. TACOMA, WA 98405 (206) 627-0609
<b>박창식 내과</b> 801 BROADWAY #912 HEATH PROT BLDG. (206) 624-5867, 827-4014	<b>이영주 치과</b> 10209 BRIDGEPORT WAY W.S. TACOMA, WA 98499 (206) 581-1412 <b>STEVENS DENTAL CENTER</b> 20728 - 76TH AVE. W. EDMONDS, WA (206) 775-3456	
<b>조병규 치과</b> 215 N. 125TH ST. SEATTLE, WA (206) 367-5570, 776-8512	1815 SO. 324TH PL. FEDERAL WAY, WA (206) 838-3180 (SEATTLE) (206) 927-4996 (TACOMA)	<b>홍인표 신경·정신과 전문의</b> 901 BOREN AVE. CABRINI TOWER #707 (206) 587-5747, 587-3748
<b>진 한방원</b> 461 E. HASTINGS ST. VANCOUVER, B.C. CANADA V6A 1P5 (604) 255-7033	<b>HOI W. LEE 치과</b> *FAMILY DENTISTRY* (Park Ave and N. 2nd St.) Vukov Medical Dental Clinic (206) 226-8151 • 226-4467	
<b>보혜사 한방원</b> 8107 22nd Ave. S.W. Seattle, WA 98106 762-8566 • 762-6493	<b>동양 한의원</b> 16715 PARK AVE. S. SPANAWAY, WA (206) 537-9592	
<b>중국 한의원</b> 605 SO. JACKSON ST. SEATTLE, WA 98104 (206) 628-0950	<b>무림 한의원</b> 1012 - 108 th Ave. N. E. Bellevue, WA 454 - 6308	
<b>제일 한방원</b> 17421 30TH DR. S.E. BOTHELL, WA 98011 (206) 483-8136	<b>박 약국</b> 8512 - 20 th Ave. N. E. SEATTLE, WA 98115 (206) 527-3010	

**공사 및 전기수리**

<b>장 서비스</b> 냉장, 냉동기, 전기보온, 가정전기제품출장수리 집칠 및 지붕수리, 정원공사, 미장공사일체 29105 S. 35 Federalway 전화: 941 ~ 5488 • 839 ~ 4172	<b>김스 종합건설</b> DAE J. KIM 3825 - 191ST S.W. LYNNWOOD, WA 98036 (206) 771-8019
<b>SONG'S PAINTING</b> 10554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525-7680, 546-1572	<b>ALOHA PACIFIC PLUMBING</b> 363-5383, 362-6368 ALOHA PP205QQ
<b>PARK'S PAINTING &amp; SIGN CO.</b> 1515 S.W. ROXBURY ST. SEATTLE, WA 98106 (206) 762-5410 (206) 242-6801	<b>리스 서비스 센터</b> MAINTERNACE CONTROCTOR (206) 771 - 5728
<b>권스 랜드스케이핑</b> 콘크리트, 펜스 잔디심기, 돌쌓기, 공터매꾸기 및 불도져 작업 정원손질일체. 821-1960(집) 821-1178(bus)	<b>원 건축 WON CONTRUCTION</b> 신축 및 증축 (206) 767 - 9372 (206) 584 - 1938
  <b>자동차 수리</b>	<b>101 바디샵</b> ALL INSURANCE WORK 10059 AURORA N. SEATTLE, WA (206) 525-5778
<b>미드웨이 주유소·정비센터</b> 23845 PACIFIC HIGH WAY SOUTH KENT, WA 98031 (206) 878-7500	<b>시온 바디샵</b> <b>ZION AUTO REBUILDER</b> AUTO, BODY REPAIR & PAINT 5402 Delridge Way S.W. Seattle, Washington 98106 Bus. (206) 837-3113 Res. (206) 838-5541
<b>LEE 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정비 센터</b>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362-4449	<b>김스 자동차 수리(종합정비)</b> 8035-15th Ave. N. E. LAKE CITY WAY 524-6006 524-9686
<b>15 th AUTO BODY</b> 12510 15th Ave. N. E. SEATTLE, WA 98125 (206) 363-3295	<b>GREENLAKE AUTO ELECTRIC</b> 6501 AURORA AVE. N. SEATTLE, WA (206) 782-4695



**영미정 YOUNG ME RESTAURANT**  
(206) 623-3112  
KOREAN & JAPANESE CUISINE  
COCKTAIL LOUNGE (LIVE MUSIC)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220 - 4TH ST. S. SEATTLE, WA 98104

**태화각**  
3133 BROADWAY  
EVERETT, WA  
6312 BOTHELL WAY N.E.  
SEATTLE, WA  
(206) 485-4020 252-1663

식당

**경화반점 京華飯店**  
**KING WHA RESTAURANT**  
Lunch: Tue.-Fri. 11:30 am-2 pm  
Dinner: Tue.-Thur. & Sun. 4:30-9:30 pm  
Closed on Mondays Fri. & Sat. 4:30-11 pm  
605 S.W. 152nd (Burien) Phone 243-0323

**귀빈원**  
11101 PACIFIC HWY. S.W.  
(206) 588-9262

**북경반점**  
**GRAND PEKING**  
1706 - A SO. 320TH  
FEDERAL WAY, WA  
(206) 839-1787 952-1787

**왕궁식당**  
7119 EMPIRE WAY SO.  
SEATTLE, WA  
(206) 723-1958

**한국관**  
212 4TH AVE. SO.  
SEATTLE, WA 98104  
(206) 622-1936

**장미원**  
8904 AURORA N.  
SEATTLE, WA  
(206) 525-1335

**ORIENTAL BAR -B- Q CENTER**  
3828 -196th S.W.  
LYNN WOOD, WA  
(206) 771-3700

**한일각 HANI KOREAN RESTAURANT**  
40 MAYNARD AVE. S.  
SEATTLE, WA 98104  
(1ST FL. BUSH HOTEL IN CHINA TOWN)  
(206) 587-0464 / 0465

**공인회계 변호사**

**이규영 계리사**  
2809 4TH AVE.  
SEATTLE, WA  
(206) 623-4181 / 3

**김종구 회계사무소**  
10351 37TH AVE. N.E.  
SEATTLE, WA  
362-8370, 367-0655

**심상연 인컴 텍스**  
10307 BRIDGEPORT WAY  
TACOMA, WA  
(206) 474-1802, 582-1644

**이종순 인컴텍스**  
2669 S.W. 355P1  
FEDERAL WAY  
(206) 939-4784

**로널드 브라운** 2110 EXCHANGE BUILDING  
2ND and MARION  
SEATTLE, WA 98104  
OFF: 682-0565 | RES: 821-4465.

『자유기고』

회의 진행법에 관하여  
긴급동의 (Ⅲ)



한만섭

지난호에는 회의진행법(Robert's Rules of Orders)의 7가지 종속동의(Subsidiary motions) 중 6가지만을 설명하였는데, 이번은 가장 널리 쓰이는 종속동의인 「개의」(Amend)를 추가설명하고 이어서 특권동의(Privileged motions)와 부수적동의(Incidental motion)를 설명하기도 한다.

개의는 이미 성문화되어 호의중인 동의에 대하여 일부문구수정을 제외하는 동의이다. 개의는 호의중인 미결동의(Pending motion)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의 동의 취지를 뒤 바껴놓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원이 "우리 재무부장을 칭찬해 주자" 라고 동의 했을 때 다른 회원이 칭찬 대신 혹평 해주자고 개의할 수 있다.

개의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 방식이 있다.

- 가. 문구를 삽입하거나 추가하는 개의
- 나. 문구를 삭제하는 개의
- 다. 한 문구를 삭제하고 그 대신 다른문구를 삽입하는 개의

이 3가지 개의에 해당하는 예를 각각 들면 다음과 같다.

예) 가. 「새라자기를 구입하자」란 동의에 대하여 「500불 한도 내에서」란 문구를 추가 개의.

예) 나. 「새라자기」의 문구중 「새」란 말을 삭제하는 개의.

예) 다. 「라자기」 대신 「전자계산기」로 바꾸자는 개의.

개의가 동의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제창이 있으면 그 개의는 성립되고 호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개의에 대하여 다시 개의를 제외할 수 있다. 즉 「재개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가 「500불 한도 내에서」란 개의문구앞에 400불 이상 이란 문구를 삽입하기로 재개의 할 수 있다. Robert's Rules은 재개의 까지를 허용하고 재개의에 대한 재재개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재개의를 필요하면 재개의를 표결로 처리한 후 다시 재개의를 불러 호의해야 한다. 개의를 표결순서는 재개의-개의 순위로 처리되어야 한다. 개의가 모두 처리되고 주동의만이 아직 미결동의로 남아있을 때 다시 주동의에 대하여 개의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개의를 계속연발하여 회의진행을 방해 할 수도 있다.

다음은 전전호에 열거한 특권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한다.

특권 동의를 다시 적으면 :

- (1) 정회시간을 정하는 동의 (Fix the time to which to adjourn)
- (2) 정회동의 (Adjourn)
- (3) 휴회동의 (Recess)
- (4) 특별문제점을 제기하는 동의 (Raise a question of privilege)
- (5) 의사 일정대조를 요구하는 동의 (Call for the orders for the day)

특권동의를 이미 상정되어 호의중인 동의와는 관련이 없지만 회의진행상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문제점을 제기하는 동의이다. 따라서 어떤 안건을 호의중인더라도 특권동의를 있으면 이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 제(1)항은 최상의 특권동의로, 다음회의를 어디서 언제 계속 하기도 제외하는 동의이다. 다시말해서 현재 진행중인 회의가 정회되면 다음회의는 이 동의의 결의에 따라 속회하자는 동의이다.

제(2)항은 현재진행중인 회의를 정회하자는 동의이다. 이 동의에 대한 제창이 있으면 호의를 하지 않고 표결에 부친다. 가결이되면 다음 정회회의까지 정회된다. 이 정회 동의를 호의할 안건이 더 이상 없거나, 혹은 시간부족, 성원미달등으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쓴다. 회원중에서 이 정회 동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자가 회원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자가 회원에게 「더 이상 호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으면 정회합니다」라고 말하고 정회(폐회) 선언을 할 수 있다.

제(3)항은 잠시 휴회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특권동의로 예를 들면 10분간 휴회하자 또는 9시까지 휴회하자는 동등의 동의이다. 제창을 거쳐 호의없이 표결한다.

제(4)항은 회원의 특권을 행사하는 동의로 예를 들면, 회의장이 시끄러워 사회자의 음성이 잘 안 들리거나 할 때 한 회원이 사회자에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동의이다.

제(5)항은 사회자에게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라고 요청하는 동의이다. 일반적으로 회의 일정은 회의전 미리 정해져 있어야하고 인쇄되어 있으면 더욱 좋다. 사회자가 과오로 일부 일정사항을 빼어 놓거나, 손서를 바꿔놓을 때 이 동의가 필요하다. 한 회원이 이 동의를 했을 때 사회자는 즉시 과오를 시정해야 한다.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동의를 걸쳐 제33분의 2이상의 과표로 결의 할 수 있다.

이상으로 13가지 동의 (5가지 특권 동의, 7가지 종속 동의, 그리고 주동의)의 내용과 처리법을 설명하였다. 이들 13가지 동의는 주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동의였는데 다음은 회의 진행법 자체가 틀리거나 사회자가 회의진행을 올바르게 못할 때 사용하는 동의 즉 부수적동의 (Incidental motions)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한다.

부수적 동의는 우선순위가 없고, 특수한 경우 아무렇게나 적용할 수 있고, 회의중 언제나 제기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부수적동의가 우리말로 긴급동의로 번역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기도 한다. 실은 긴급동의라고 번역될 수 있는 동의는 Robert's Rules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아예에 흔히 사용되는 부수적 동의 몇 가지 구별명 한다.

1. 규칙 준수동의 (Point of Order)-회의 진행법이 위반되었을 때 한 회원이 규칙준수를 제기하여 사회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동의이다. 예를 들면 토론종결이 가결되었는데도 사회자가 또 다시 한 회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경우 다른 회원이 'Point of order'라고 해서 사회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사회자는 자기의 과오를 즉시 인정하고, 토론종결을 재확인하고 표결을 실시한다.
2. 상소 (Appeal) 제고 동의-사회자의 결정사항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 결정사항은 번복하려는 동의이다. 예를 들면 한 회원이 개의를 하는데 그 개의 내용이 주동의와 관련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자가 그 개의를 허용할 경우 상기 'Point of order'로 항의 하였으나 사회자는 자기가 옳다고 결정했을 때 이 제고동의를 할 수 있다. 제고동의를 제창이 필요하고 호의할 수 있다. 사회자가 옳은가 틀린가는 전체회의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한다. (정부 요구 동의)
3. 정보점 (Point of Information)-어떤 안건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동의이다. 예를 들면 라자기를 사는데 현재 재정사정을 요구

하는 동의를 이에 해당된다. 이 동의는 사회자에게 요청하여 제무로 하여금 보고해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규칙정지 (Suspend the Rules)-회의를 진행하는 데 회의규칙을 정지하지 않고서는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동의이다. 예를 들면 의사일정을 바꾼다던가 할 때 이 동의를 필요하다. 제창을 걸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이상 4가지 부수동의 외에도 동의를 가르키는 동의 (Division of a Question), 동의를 반대하는 동의 (Object to Consideration of a Question), 제무표를 요구하는 동의 (Division of the Assembly) 동등이 있으나 지면관계로 약한다.

이상으로 Robert's Rules of Order가 정하는 회의진행법은 대략 설명하였다. 흥분치는 못하지만 정도만 알면 동의회 (Town meeting), 조합회의 (Union meeting) 고 회총회, 한인회총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은 물론 사회경도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회의 진행법을 교육받고 연습하고 싶은 사람은, (1) Toastmasters Club, (2) National Association of Parliamentarians, Seattle Chapter, (3) The American Institute of Parliamentarians 등에 참석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Robert's Rule of Order는 미국의 회법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선동의 - 후동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회의 진행법은 의회나 총회같은 데에서 아주 유로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은 회의 즉 임원회, 이사회 등에서 「선동의 - 후동의」의 형식이 더 편하게 적용될 때가 있다. 이후자의 회의 진행법에 흥미가 있는 분은 Welty 저서 "Book of Procedures for Meetings, Boards, Committees and Officers"를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 (끝)

주 기 - 법용어에 문의한인 필자가 미국용어를 우리말로 옮기는데 많은 착오가 있었던 것과 하자의 과오도 전후의사가 잘 통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을 독자들께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

필자 : Panel of Arbitrator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각종 영문 및 한글 인쇄  
**富林印刷**  
(206) 433-8811

## 『독자투고』

### 생각하며 실천하는 지혜



손옥봉

찬익은 배이삭은 숙연히 그 개를 숙이지만 덜익은 배는 오만스럽게도 그 개를 들어 도도한척한다. 이찌 삼탄만상 가운데 그 분이겠는가?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후안무치하게 자기중심으로 사회를 이끌어갈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언이나 모든 사회구성원 한사람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란 환경, 교육적 측면이 상이함으로 다소의 차이점은 있다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현실, 가정, 사회, 나아가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지녀야 할 윤리도덕적인 소양이란 것이 양식에 준한 행동이 결실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중의 소리를 의면한채 아집과 독선으로 많은 불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만일 물이 역류한다고 하면 소용돌이가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며 역겨움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손리에 따라서 사는 지혜를 길러야 하고 나보다는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옛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은강물을 흐린다는 사실이 오늘을 실감나게 한다. 남에게 이익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해독을 끼치는 짓을 해야 되겠는가?

최소한 우리는 한편쯤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줄 안다. 지나치게 표면적으로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행동을 사색보다 앞세우는 자일 것이다. 그들은 행동에 결과에 대한 깊은 통찰도 반추도 없기 때문에 후안무치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깊은 사색을 통하여서만 아름답게 될 수 있고 사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색은 인생을 보는 지혜의 눈이며 양심을 찾아내는 거울이기도 하다. 식자우환이란 말처럼 안다는 것과 비판력을 갖는다는 것이 이처럼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는 사회가 과거 어느 때에 또 있었겠는가? 가면을 쓴 얼굴과 본질한 양심이 도처에서 난무하고 깊은 생각이 없으므로 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직심도 없으며 엄지란 아예 뒷

전에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정당화를 위하여 항상 양박한 이해와 억지는 비판을 전개할뿐이며 빈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은근 빈구와 변지르듯한 간판처럼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실로 깊은 정감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가장 좋은 일들을 논뜨게 하는 계기이지만 혼란한 사회에 부딪치게 되면 사슴의 뿔과도 같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오늘이 비국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자신이 상식적으로 악인을 대해주면 남도 나에게 상식의 바탕에서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다. 사실 상식이란 단어는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며 우리누구누가 갖고 있는 일반적 사회적 보편타당성을 지닌 지식이고 보면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된 오늘날의 슬막이는 현실을 생각할 때에 답답함과 안타까움뿐이다. 우리는 민주적인 제도 및 자유를 만끽하는 시대와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 고마움을 모르고 이를 악용하며 남용하는 나머지 방종과 혼돈 무질서를 가져오는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우리는 민주질서를 지키며 자유를 사랑할 줄 아는 몸가짐부터 배워야 하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한편쯤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한다. 자유보장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사회통념상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항상 도덕과 사회관습에 기준을 둔 자유이어야 하며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풍토와 아껴주는 자유도 심본 조성되어야 하고 자신 아닌 악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같이 우리는 민주질서를 준수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생활가운데 보다 깊은 정감과 행동으로 내어놓고 오늘의 사회를 원만하게 형성하느라고 민개개인의 집 양면에서 생활양상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우리 한 인사회도 굳건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초창기 이민사에 찬란한 꽃을 피워야 할 사명감과 공동운명체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하지 않을까?

(필자 : 한인회 부이사장)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생활정보』

골동품의 기초상식과 관리요령

과상영

골동품 하면 보통 100년은 넘어야 골동품으로 본다. 그러나 80년 이상이면 골동품으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골동품은 가치로 보나 무엇으로 보아도 후자 대상에서 빠질 수가 없다. 골동품의 외소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한된 숫자에 묘사할 수 없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금, 은 보화는 계속 생산이 가능하고 현금과 주식은 지수는 인플레이션을 따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동품은 후자 대상으로서 또는 장식품으로도 으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골동품을 소유했어도 진가를 모르고 있을 때 또한 볼품없게 아무곳에 방치되어 있다하면 그것은 골동품이란 걸만 알고 수집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속에 훌륭한 골동품이 많이 있으며 우리가 관심만 둔다면 이곳 역시 주목하는 한국을 아는 외국인도 많으므로 손쉽게 행운을 얻을 찬스가 있음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골동품은 모두가 관심을 두고 골동품가계를 지나칠일이 있을 때 한번쯤 둘러 구경하는 것도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골동품의 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것은 년대와 어느 계층에서 사용했는지 현재의 보존상태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오늘 여기에 열거하는 감정요령을 참고하여 진품을 구입한다면 더바랄일이 없겠다.

이외에 고가이거나 본별하기가 힘들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1. 서화

서화는 쉽게 말해서 글씨와 그림을 얘기하며 그림은 채색이 들어간 것이나 묵화등 총틀어 얘기할 수 있다. 고대 말부터 이조에 들어오면서서 작품들이 인기가 높다. 그 당시만해도 작가들의 낙관이 없는 작품들이 많이 있으나 낙관이 없더라도 필체의 으뜸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 낙관이 있는 것은 오히려 연대가 짧을 수 있다.

- (1) 오래된 작품의 종이 짙은 질감을 주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 희백색에 그린것같은 감을 준다.
- (2) 채색이나 먹이 지난자리는 온기가 나리만큼 쉼감을 주며 채색또한 바랜부분을 볼 수 있다. 특히 색은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좋은 물감이 없어 꽃가루를 색종류로 거두어 말렸다가 소량의 물과함께 끈적끈적한 수액

을 사용했으며 먹 또한 균질의 검은 크류등을 사용한것을 상기하면 이해하기 쉽다.

- (3) 기지(실크)를 사용한것은 연륙등은 엄두에 두지 말고 이조만기만해도 기계로 짠것을 볼 수 있으나 아주귀하므로 거의 손으로 짠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해보면 울이 일정한지 않은것을 볼 수 있다.

2. 도자기

도자기는 필수용이었기 때문에 매우 오래된것이 많다. 신라때나 그 이전의 도기들은 오래된 무덤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으나 우리에게 인기가 없다. 물론 색도있고 장식품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쉽게 알수있으며 인기가 있는것은 청자와 백자를 들 수 있다. 고려청자는 그 당시 색을 무엇으로 썼는가를 지금도 깨지못하고 있는 신비한비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 당시만해도 외국(주로 당나라)에서 값 비싼 색을 수입. 청자를 만들어 사용했으나 이조에 들어오면서 비싼 청자보다는 사용하기에는 똑같은 백자 중심으로 변했고 가끔 상류계급에서 사용하는 종류에만 청색이 입혀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 (1) 도자기는 조심스럽게 잡고 입구와 밑을 세심히 관찰해야 하며 입구언저리에 생긴 실금사이로 색의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밑바닥은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도예들도 색갈 또한 오래된것임을 알 수 있다. 가능한 대형일수록 좋으며 그외 형태를 보고 시대를 판단하는 법이 있으나 매우 어렵다.

3. 목기

목기는 종류가 매우 많기때문에 가능하면 각자가 자기집 구조에 따라서 장식할 수 있는 종류를 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방각자, 이층장, 약장, 책장등은 아주 용도가 많기때문에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거의가 상류층이 사용했던 것들도 진품만 가지고 있다면 가격또한 많이간다.

- (1) 옛날 가구의 특징은 주로 이음부분을 쇠못을 쓰지 아니했으며 판 또한 흙으로 만들지 않고 손으로 찍어 만든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오래된것은 나이에 따라 삭아있어진 결을 얻을 수 있다. 장식부분에 쓰인뎀의 머리는 일정한치 않으며 장식또한 짜른부분이 많이있다

없이진것을 볼 수 있다. 모조품들은 내부 구석구석에 새로 채색한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온기가 흐르고 있다는지 색이 일정한치 않다는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가끔 진품중에 못되는 장식품이 다소 바뀐것은 무방하다. 특히 유의할것은 이음 부분의 조잡함을 보아야 하며 모든 장식이 고체되었다면 모조품으로 알고 있는것이 좋다.

이외에 더많은 설명이 필요하나 그 이상의 전문 지식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골동품은 고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구입하여야 한다. 또한 실내 장식은 가능한 골동품은 골동품끼리 장연히 배치하는 것이 더 우아하고 품위를 높여준다 아무곳이나 스페이스가 있다해서 채워놓는다면 곤란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반듯반듯하고 온기가 흐르는 신작품들과 같이 진열할때 골동품

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볼품없이 때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서화작품도 지나치면서 보는 곳이 아니면 모두 좋으나 고서화는 오래볼수있는 장소가 더 바람직하다. 표구또한 중요하므로 실로나 확산지를 사용한 작품들은 꼭 오래 삭혀서 만든 작품을 사용해야 하며 (확실히 사용환경우 나중엔 원본보존에 큰손해를 보기때문)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처음만들때 좋은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실증이 나는것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다시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보관에 있어서는 도자기등은 가끔 물기없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먼지만 닦아주면되고 물같은것은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다. 목기종류는 메탄오일이나 울드러니저오일을 부드러운 헝겊에 발라 자주 닦아주면 수명은 물론 최색이 아주 더 좋아 질 수 있다.

**청도식당**  
**TSING TAO**  
 ◎순한국식중화요리전문  
 ◎수타국수, 칵테일완비

영업시간  
 화-목 : 12:00 - 10:00PM  
 금-토 : 12:00 - 11:00PM  
 일 : 1:00PM - 10:00PM  
 월 : 휴일  
 전화 367-9339  
 13744 AURORA AVE N.  
 SEATTLE, WA

**이영주 치과**

타코마 지역 581-1412

진료일시 화, 목, 토 (아침9시~6시)  
 진료장소 Sun Plaza Suite #10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WA 98499

시애틀 지역 775-3456

진료일시 월, 금 (아침9시~6시)  
 수, 토 (12시~4시49시)  
 진료장소 Stevens Dental Center  
 30728 - 76th Ave W.  
 Edmonds, WA 98020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웁시다!**

사랑 하는 젊은이들에게

Paul S. Piek

1. 한편밖에 없는 인생길 이기에

나는 한국의 청년들을 무척 좋아 한다. 나는 젊고 뜨겁고, 또 순진한 피아파라 는 불을 무척 좋아 한다. 데모 속에 입학과 졸업은 마친 젊은 날을 상거하면 기구했던 조국의 현실이 조금은 서글픈 것도 같다.

지금도 경쟁이 치열을 올려주는 사랑과 손과 공부, 데-칸-쇼 의 노래속에 모닥불 피워놓고 빙빙 돌면서 젊음을 노래하던 산정의 기억이며, 철학고수의 하신 말씀이 언뜻 언뜻 다가오는 줄 모르고 생을 논하던 그 리갈었던 (무구한) 학생시절이 조금은 낯 익고 또 조금은 대견해서 차마 못 잊을 것 같다. 한편, 한편밖에 없는 젊은 시절을 유감없이 보냈다는 자부심 때문에 감히 담담한 심경도 갖는다.

인생이란 책은 처음에 다시 돌아와 읽을 수 없는 책이라고 믿었다. 인생의 황금시기를 갖은 젊은이에게 선택해서 감히 이 말을 권해 준다.

2. "Ambition 은 A to 시작된다.

대만을 품지 않은 젊은이는 이미 젊지 않다. 내가 겪은 것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실(Sincerity)이다.

성실이란 "말한대로 이루어 놓는 행위" 또는 "거짓 없는 좋은 열매 맺는 행위"를 말하는 데 현대 문화에서 그 주체가 바로 "신 앞에선 나의 성실"이라고 볼 수 있겠다.

피소로스(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이요, 국가가 필요로 하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로저라고 부른다. 대량인 위험한 꿈이 아니고, 그것은 성실이 안일이 익어 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만을 가진 자는 만사에 욕을 받도록 하라.

3. 과학적인 사고와 인생철학

동양인에게 가장 위험한 심수의 원인은 "사고의 비약 또는 논리의 비약"에 있다.

죽, 주춧돌을 놓기도 전에 지붕을 덮으려 한다는 표현으로 설명 될런지? 설개도 없이 금철을 적으려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 본다. "주먹구구식"이란 표현이 있듯이 순서와 경우와

결과를 무시한 우매한 생활습성이라고 풀이해 본다. 우선 심사속고 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한다. "Cogito ergo Sum" 이란 말이 있다.

Descartes, Kant, Schopenhauer (데-칸-쇼)가 남겨 놓은 인생의 고민들을 갖고 한번쯤 반문 세워 봐야 할 것이다. Goethe 의 Faust 의 깊은 반문 같이 하는 무계있는 젊은 날을 마련해 보라.

4. 현실은 중요하겠, 그러나 이상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하나니.

독일의 손꼽는 권인 Kant는 이런 말을 했다. "Plain living, high thinking," "깊이 생각해보라. 생활은 평범하게 하지만 이상을 높게 가져라"는 것 같다.

지금들 중히 여기는 자는 미래도 중히 여기는 법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연속된 상태가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은 이상을 이터가며, 이상은 현실을 이끌어 가는 셈이다. 인간 역사는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수메바의 자취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이상은 시간과 함께 사라져가지 않는 이상이다. 이 이상을 권리라고 생각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인류 역사속에는 반짝이다 사라져가는 권리가 무수히 많다. 우리 젊은 이는 시간과 함께 사라져가지 않는 권리를 찾아보라.

5. 그러나 현실은 차거운 것이 많은 법이다. 여러분이 서해있는 인종, 언어, 경제문제는 너무도 차게 여러분 가슴속을 파고 들 것이다.

이런들 안았으면 이런 현실을 애초에 왜 하건 말았어야 좋을 것 이라고 때로는 원망과 자란(탄식)을 금치 못 하 때가 있을 줄 안다.

이것을 "연단의 시기"로 알고 잘 감당하여 승리 하라 라고 결심 하라.

연약한 적과 싸워 이겨야 하는 승리의 상을 받을 수는 없다. 강부더운 적과 싸워 승리하는 자만이 큰 상과 보람을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높은 산은 정복하기가 무척 힘들 것 이라고 다들 알고 있으리라. 그 뒤에 오는 그 남작다운 쾌감과 감격과 흥만을 바라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산 사나이들의 인내를 본받아라.

무엇보다도 책과 서람 하며 책과 사랑하는 시간은 제일 많이 할애 하도록 하라. "인, 지, 양"은 자 되 지는 자" 라고 명심 하라. "개미와 배움이" 우화들 어느 지? 모르면 부모님께 꼭 물어서 그 의미를 음미해 보라.

6. 자중하라 (Self Respection)

젊은이는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된다.

인간은 인간이어야지 Computer나 Animal 이 되어서는 안된다. "같은 물에 젖어 넘어지는 자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문학, 역사, 윤리와 철학, 동 인문적인 분야에 남게 읽도록 유의 하라.

이리하여 자기 자신을 고상하게 키워 가도록 하라. 무슨 권금을 갖든지, 좋은 상식을 가져야 한다.

7. 참된 자유를 발견하라.

이것은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진리를 알거니,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일까?

나는 성경 안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다. 한국의 피를 이어 받은 젊은이들이여, 나를 단테하게 하는 진리, 현재의 삶을 의미있게 하며, 미래의 삶이 안전 보장된 이 진리를 어러분도 소유 하길 나는 소원한다.

( 필자 : 고려 해외원 원장 )

# 메트로폴리탄보험

안녕하십니까?

저희 메트로 폴리탄 보험회사는 120년의 오랜역사와 5천만명이 가입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회사로서

- \* 생명보험 개인퇴직보험 중업원 상해보험 저축성교육보험
- \* 세금공제연금
- \* 건강보험 \* 자동차 보험
- \* 가옥 보험 이러한것이 저희의 주된 취급업종입니다.
- \*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최고 100만불까지의 여러종류가 있으며 저렴한 보험료로 선택은 여러분의 절대적 권리입니다.
- \* 사업보험은 특정한 관제를 맺고있는 전문보험인에게 의뢰하여 중간에서 성실하게 봉사할것입니다.
- \* 보장된 내일의 생활을 위하여 여러분의 결에서 『서비스』는 계속 될것입니다.

보험 대리인 안 창 영 드림



**Metropolitan**  
Metropolitan really stands by you.  
LIFE/HEALTH/AUTO/HOMERETIREMENT

827-0347 (사무실) 431-9192 (집) 584-7121 (타)  
ROSE HILL OFFICE PARK 12636 N.E. 85th St. KIRKLAND, WA 98033

『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 』

청바지 가게 주인께

우선 신임 회장단 전원께 고민의 한사람으로서 고  
포를 위한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 고민이  
기대하는 한인회가 되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년에 보기 힘든 회장단조직에 더욱 큰 기대를 본인은  
가져 봅니다. 본 필자가 도울수 있는일이 있다  
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편집담당자께 어렵고 싶은게 있습니다. 받간된  
83년도 회보는 잘 보았습니다.

허나, 한인업소 소개란에 한인업소를 최대한 모두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개인 감정으로 저질  
터 지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본인이 경영하는  
청바지 전문매장은 어언 3년동안 신문(한국,미국지)  
등에 년중 광고를 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사  
유로 본 청바지 매장이 사라지고 (더우기 Seattle에  
있는 업소이고 한때) 그보다 아코마에 있는것들이  
더 많이 삽입되어 있는것요.

82년도 부터 수차 연락을 했으나 반응이 전혀없  
더니 83년도에도 그대로 이어 받는것 같군요.

미국 이민생활 6년동안 한해도 한인회에 기부금 또  
는 회비를 납부 안해본적이 없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  
아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모로록 부족한 고민들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면서 과연 83년도 회장단에 거는 큰 기대와 함께 저  
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저와같은 분이 있다면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한인업소 만큼은 일제히 회보를  
통해 소개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한  
인회 임직원분께 전심으로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난  
필로 이만 줄임을 용서 바랍니다.

(노스 이스트) 청바지 가게 주인.

보내주신 송고의 편지 잘 받아 읽었습니다.  
을 한인회 회장단,임원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시  
다니 그마우면서도 어깨가 무거워지는것 같습니다.

한인업소 광고란에 관한 선생님의 의문에 대해서  
몇마디 대답을 드립니다. 우선 귀 청바지 센터의  
광고가 지난호 회보에 빠져계셨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음호에는 꼭 실려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엄격하시는 뜻은 잘 이해 하겠습니다  
마는, 저의 편집부에서는 어느 한인업소에 대해서나  
"감정"으로 광고란에서 빼거나 더하는 일은 없으며,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번 회  
보를 제작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제작비 조  
달을 위하여 할수없이 소액의 광고료를 받고 있음으  
로 일단 광고를 원하시는 본들의 요청에 따라 광고를  
실려드려하는 편집방침을 세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따라서 지난호 광고는 요청에 의하여 실  
린것이며 과거에 게재되었던 업소에 대해서도 일일이  
계제어부를 묻고 허락하시는 본들의 업소에 한해서  
실어 드렸습니다. 물론 이 지역 고포사회 모든업  
소에 다 전화들 드려서 물어보는것이 바람직한 일인  
줄 아오나 바쁜 일과속에서 힘을 내어 봉사하는 저희  
임원들의 힘만으로는는 도저히 이면일을 다 할수 없  
다는것을 충분히 이해 하실줄 믿읍니다.

아시다 시피 한인회보는 어느 개인이나 일부단체의  
회보가 아니고 전 고민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언  
제든지 회보가 고민단체에 이익이 될수 있도록 꾸며  
져야 하는것이 마땅한 일이고 저희 편집부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되도록 한인업소를 최대한 모두 한인회보에  
실을수 있게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한인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본들과 저희 회보  
에 걸어주시는 선생님의 기대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  
를 드리며 앞으로 고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편집부에서  
하는일에 의문이 있으시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서슴  
치 마시고 지적해 주시고 송고와 조언을 주시기 바  
랍니다.

귀 청바지 센터가 일익 번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83년 4월

한인회보 편집부

**린우드 B.B.Q 센터**  
불갈비, 냉면(한식일체)

영영업시간 : 오전11시~오후10시  
카테일라운지 : 오전11시~새벽2시  
(7 DAYS A WEEK)

★각종파티, 연회석원비, 넓은파킹장준비

ORIENTAL B.B.Q CENTER  
3828 196th St. SW.  
Lynnwood, Wa. 98036 ☎771-3700

한인회 재무보고 (수입지부)

1) 한국의 날 행사 (찬조금)	
이동립	\$ 415.00
영사관	\$1,000.00
김간난	\$ 35.00
이현기	\$ 20.00
김홍식	\$ 500.00
신호범	\$ 500.00
이영주	\$ 70.00
KOREA TRADE CENTER	\$ 200.00
라코마 한인회	\$ 100.00
연합장로회	\$ 100.00
임광희	\$ 100.00
한일각	\$ 200.00
김창송	\$ 200.00
GEORGE MOON	\$ 500.00
MRS. LEA J. ARMSTRONG	\$ 100.00
이손모	\$ 200.00
김기량	\$ 50.00
RON BROWN	\$ 100.00
곽종세	\$ 100.00
김영남	\$ 50.00
합계	\$ 4540.00

2) 한인회비	
Mrs. Armstrong	\$ 10.00
임광희	\$ 20.00
김정래	\$ 20.00
Mrs. Tradwell	\$ 15.00
김간난	\$ 10.00

김간난씨 따님 (Alice)	\$ 10.00
이호 l.w.DDS	\$ 30.00
박춘환	\$ 20.00
강태원	\$ 15.00
백세현	\$ 25.00
OH, SANG M.	\$ 10.00
오수당	\$ 20.00
이익환	\$ 20.00
KYOUNG HONG	\$ 20.00
정은제	\$ 20.00
이신남	\$ 20.00
LEE, SOON M.	\$ 170.00
고봉식	\$ 20.00
유태연	\$ 20.00
엄도승	\$ 50.00
신창호	\$ 20.00
합계	\$ 555.00

3) 광고비	
장미상회	\$ 10.00
보혜사 한방원	\$ 40.00
박창식 내과	\$ 40.00
Sea Hurst Handy Mart	\$ 10.00
대한여행사	\$ 10.00
조병규 치과	\$ 40.00
아줌마 식품	\$ 10.00
Express Copy & Print	\$ 20.00
장여행사	\$ 40.00
Kent Oriental Imports	\$ 10.00
왕궁 식당	\$ 10.00

트로피 (안선근)	\$ 60.00
합계	\$ 300.00

4) 한글학교 기부금	
영사관	\$ 1000.00
I. David Hong MD	\$ 100.00
이현진	\$ 50.00
김간난	\$ 50.00
문근성	\$ 20.00
합계	\$ 1220.00

5) 건축 기부금	
임옥난	\$ 20.00
이익환	\$ 50.00
신동준	\$ 50.00
문근성	\$ 30.00
MYRNA K. LEE Mrs. 이동립	\$ 10.00
합계	\$ 160.00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 현대식품

가격 · 품질 서비스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니다  
같은돈으로 이같이 많은 장을 볼수있는곳이  
바로 현대식품입니다.



\*집에서 만든 찹쌀고추장 · 조선간장 · 된장  
\*소문난 김치 · 밀반찬류

Open 아침9시부터 저녁9시(년중무휴)

**762-4792**

10402 16th Ave S.W.

Seattle, WA 98146

## KOREA DAY BANQUET BRINGS TOGETHER GOVERNOR AND MRS. SPELLMAN AND 300 AMERICANS AND DR. AND MRS. PAULL SHINN AND 400 KORE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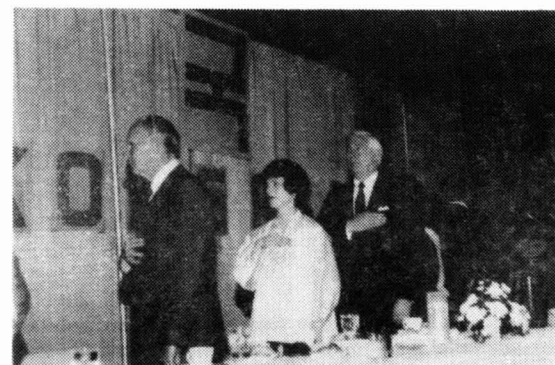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wo Communities greatly Enhanced;  
Washingtonians of Korean Descent Recognized for their  
Prominent Role in the State's Economy and Culture

Paull Shinn and his team of leaders of the Korean Association held a banquet at Seattle Trade Center on the night of April 23 to celebrate Korea Day proclaimed by Governor Spellman and Mayor Royer. Some 700 guests from all sectors of the Korean and American communities in the state of Washington dined together, heard the speeches recognizing the Korean community's contribution to the city and the state, and enjoyed the colorful programs of Korean music and dance (both classical and modern) and Taekwondo martial art.

Among the VIP's present were Ambassador Kyong Won Kim,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Governor and Mrs. John Spellman, Consul General and Mrs. Moon Soo Lee, Mrs. and Mr. Jeannette Williams, the chairperson of Seattle City Council, Mrs. Chang Hei Lee, and Dr. and Mrs. Dan Lee.

In his after dinner speech, with Paull Shinn presiding, Spellman observed that the 101 year-old Korean-American relations have a longer history than that of the State of Washington which became a state in 1889. He went on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rade with Korea for the state of Washington, especially since Washington is the nearest state to Korea and Far East. Expressing his interest in increased trade with Korea, Spellman urged the 30,000 Koreans residing in the state of Washington to actively participate in developing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state and its trade with Korea.

The other two speakers, Ambassador Kyong Won Kim and Consul General Moon Soo Lee,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of the comparative advantages both nations can derive from increased trade. All agreed that the Washingtonians of Korean descent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not only for the state of Washington but for both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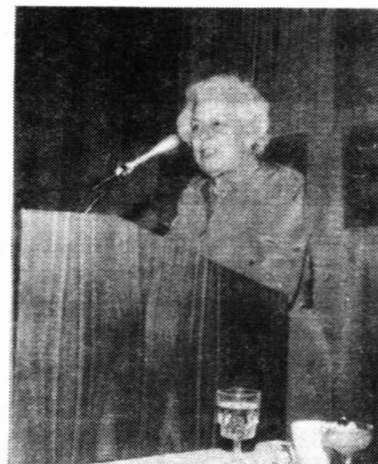




△ 김경원 UN 대사 인사



△ 스펠만 주지사인사



△ 웰리암스 시의회 의장인사



△ 궁중무용



△ 사교춤



△ 민속무용



△ 태권도 시범



△ 어린이 무용



State of Washington

## PROCLAMATION

WHEREAS, the treaty that was signed on May 22, 1882,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WHEREAS, the Korean conflict ratified the ties of friendship between our peoples and reinforced a common dedication to the principles of peace and freedom; and

WHEREAS, since 1977, Washington State's trade with Korea has increased at a rate greater than our trade with any other country; and

WHEREAS, regularly scheduled non-stop air service between Seattle and Seoul provides for the rapid exchange of tourists, businessmen, and cargo; and

WHEREAS, through the Friendship Force program, Washington State has had several large group exchanges of peoples with like beliefs and interests; and

WHEREAS, we are mindful of the growth of the Korean community in Washington State and of the need for improved relations between our ethnic communities; and

WHEREAS, commercial ties between Korea and Washington State have rapidly expanded with numerous Korean businesses locating offices in Washington State; and

WHEREAS,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in Seattle continues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social, cultural, and commercial communities of Washington State;

NOW, THEREFORE, I, John Spellman, Governor of the state of Washington, do hereby proclaim Saturday, April 23, 1983, as

KOREA DAY

in Washington State, and I invite all citizens to join in this observance.

Signed, this 15th day of April, 1983.



*John Spellman*  
Governor John Spellman

**"Korea Night Banquet Was a Huge Success,"  
Say Letters from Guests**

The following are letters we have received from the guests who attended the KOREA NIGHT BANQUET at Seattle Trade Center on April 23, 1983. We regret that we are not able to present them all in this limited space.

Dear Dr. Paull Shin and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Members:

Your Korean Night dinner was a huge success. I'm sure that you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when you see all of the work and planning that goes into such an undertaking reach a great conclusion.

As you know, many of the members of the Marine Corps League served in Korea and have a special feeling of affection for the Korean people.

Thanks for helping to make our evening very enjoyable. Your warm hospitality is appreciated.

Semper Fidelis,

Don Taylor  
Commandant  
Marine Corps League  
Department of Washington

\* \*

Thank you so much for extending your warm friendship and hospitality to us at the recent Korea Night Banquet. As adoptive parents of Korean children, we were especially proud and honored to be included in this very special event.

Again, thank you so very much.

Sincerely,

Mr. and Mrs. George Knowles

\* \*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an inspiring evening.

We will work together to assure Koreans participate in important matters that affect them in the City of Seattle.

Sincerely,

Dolores Sibonga  
Seattle City Councilmember

\* \*

The program was outstanding. The entertainment was colorful and very talented. The Ambassador's remarks were well delivered and most informative. All in all, I believe you and Consul General Lee have contributed immeasurably to the warmth and friendship between the Korean and American people.

My congratulations to you both for a fine job well done. The event will linger long in the memories of all those in attendance.

Sincerely,

Wayne B. Gentry  
State Protocol Officer

\* \*

I want to thank you again for the opportunity of joining you for the celebration of Korea Night on the 23rd of April.

It was a very impressive program and signified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 State of Washington.

With kindest regards,

The Saturday evening Banquet in celebration of Korea Day was a splendid affair. Commander and Mrs. Pennington, Mrs. Lewin and myself enjoyed the festivities tremendously.

Thank you so very kindly for inviting each of us. Your inclusion of my houseguests was greatly appreciated. I was particularly impressed by your remarks.

A special note of thanks for the helpful assistance of Ms. Jan Martinson. Throughout the scheduling process, she was most courteous and thoughtful.

Thank you again, sir. We were honored to be able to join you. I will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in the near future.

Sincerely,

T. E. Lewin  
Commodore, U.S. Navy

\* \*

Korea Day 1983 Banquet was an outstanding event. My wife Janie and I were honored to participate.

The warm recollections of joint accomplishments and the exciting anticipation of future achievement filled the evening

Korea-Washington a natural!

J. T. Quigg  
Member  
Washington State Senate

\* \*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he splendid evening my Marines and I had at the Korea Day Banquet. It is a pleasure to be a part of such a positive, well received event. The Marine Corps has taken pride in the role it played in Korea and it is very obvious that the bond between our two great peoples is long lasting/

The Banquet was noteworthy and more importantly, the warm, personal reception of all those individuals in attendance was very rewarding.

Again, thank you for including the U.S. Marines.

W. S. Proctor  
Major, U.S. Marine Corps  
Commanding

\* \*

Thank you so much for extending invitations to celebrate Korea Day to adoptive families with Korean children.

It was a wonderful evening. As parents of a lovely Korean child, we welcome every opportunity to learn more about our daughter's cultural heritage.

Thank you again for reaching out to families such as ours.

Sincerely yours,

Audrey Hansen Beckwith  
and John Chen Beckwith

City of Seattle - Office of the Mayor  
**Proclamation**

WHEREAS, friendly and cordial relations have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for more than 100 years; and

WHEREAS, the growing trade with Korea is important to the economic health of our city; and

WHEREAS, the people of both nations share a common belief in the value of human dignity; and

WHEREAS, the people of Seattle believe deeply in the enormous value of having many strong ethnic communities in our city; and

WHEREAS, we hope to create even better relations among our ethnic communities; and

WHEREAS, the more than 10,000 Korean Americans who live and work in the Seattle area have made remarkable contributions to the economic, social, educational, and cultural life of our city;

NOW, THEREFORE, I, CHARLES ROYER, Mayor of the City of Seattle, do hereby proclaim April 23, 1983, as KOREA DAY in Seattle in tribute to our many Korean American friends.



*Charles Royer*  
Charles Royer  
Mayor

## 스펠만 주지사의 『한국의 날』 선포문(전문)

- \* 1882년 5월 22일 체결된 조약으로 우리양국간에 외교관계가 수립 되었으며
- \* 한국영사관은 양국민간의 우호관계를 승인하고 평화와 자유의 원칙에 대한 공통적인 헌신을 재 강화 했으며
- \* 1977년 이래 워싱턴주와 한국간의 무역이 다른 어떤나라와의 교역 보다도 급속도로 증가되었으며
- \* 시애틀과 서울간의 정기직통 항로운행으로 여행자, 사업가 및 화물이 신속히 교환되고있으며
- \* 『우정의 사절』을 통하여 워싱턴주는 같은 마음과 관심을 가진 대 규모의 양 국민 방문단을 수차 교환해 왔으며
- \* 워싱턴주에 주재하는 다수의 한국상사와 더불어 한국과 워싱턴주간의 통상 관계가 급속도로 증대 되어 왔으며
- \* 주 시애틀 한국총영사관은 워싱턴주의 사회, 문화, 사업계에 계속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있으며
- \* 워싱턴주에 성장해가고있는 한인사회를 그리고 한국·미국 두 커뮤니티간의 가일층 향상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것이 필요함을 마음에 두면서

이에 본인 주지사 존 스펠만은 1983년 4월 23일 토요일을 워싱턴주의 『한국의 날』로 선포하고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날을 지켜주도록 권유한다.

## 로이어 시애틀 시장의 『한국의 날』 선포문(전문)

- \* 미국과 한국 사이에 지난 100여년동안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존재해 왔으며
- \* 증대되어가는 한국과의 교역이 우리 시애틀 시의 경제적 견실에 중요하며
- \* 양국 국민이 다 함께 인간이 존엄하다는 가치를 믿고 있으며
- \* 시애틀 시민들은 우리 시애틀 시에 여러개의 강한 인종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막중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 \* 우리가 시애틀의 여러 인종 커뮤니티 사이에 지금보다 더욱 더 향상된 유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 \* 시애틀 시에서 살며 일하는 1만여 미국계 한인들은 우리 시애틀 시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생활에 갈목할만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므로 이제 시애틀 시장인 본인 찰스 로이어는 우리의 많은 미국계 한인 친구들을 위하여 1983년 4월 23일을 시애틀 시의 『한국의 날』로 선포한다.

## CHOOSING THE BEST FROM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Paul Shir Thanks All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Day Banquet while Relating the Significance of its Success to the Korean Community's Future.



Dear Friends:

I wish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all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April 23rd KOREA DAY celebration: Mrs. In Hee Tradewell and her students, Gene Tradewell, Michell Plunkett, Christa Nelson and Hilry Bonlimback for their traditional court dance numbers; Mrs. Kyong Hoe Cho and her students, Kyong A Huh, Jong Huh, Shannon Kim, Tong Ha Paik, Gene Kim and Songa Cho for their folk dance numbers; Mr. Chang Hun Park and Mrs. Hae Won Oh for their beautiful solos; Mr. Pil Soon Kim for presenting both the Korean and American national anthems; Master Hak Tok Yun and his students, Steve Oldfan, Sang Myong Namin, Donna Carpenter, Steve Hahn and Raphy Park for their Korean martial arts demonstration; and the members of the Washington State Korean Music Association, specifically, Mrs. Sun In Kim, Mrs. Mi Kyong Kim, Mrs. Kyonga Oh, Mrs. Haw Yong Kim, Mr. Chang Hoon Park, Mrs. Yong Hae Kim, Mrs. Hae Won Oh, Mrs. Yong Hae Lee, Mrs. Mae In Chong, Mrs. Tae Hi Lee, Mr. Pil Soon Kim, Mrs. Hee Kyong Lee and the conductor Han Bok Yoon for their masterful renditions of Korean and American folk songs. A special thanks goes to Mrs. Nan Hahn for her service as the mistress of ceremony and for arranging and organizing the program in a most successful manner. Deep gratitude goes to those who generously contributed finances to help defray the cost of the banquet. Also, I wish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s to the board of directors, entire cabinet members and members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ir indefatigable assistance in rendering this eventful program most successful. A special thanks goes to the Rose Garden band for dance music, Mr. Jong Tae Kim for electrical and musical arrangements and Mr. Dong Hwan Bae and Mr. Ho Chul Park for the program signs.

In addition, I wish to offer special thanks to our honored guests and speakers, Ambassador Kyong Won Kim,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Governor and Mrs. John Spellman, the governor of Washington State, Consul General and Mrs. Moon Soo Lee, representing the Korean government and Mrs. and Mr. Jeannette Williams, the chairperson of Seattle City Council. Indeed, their speeches were most informative and so personal that it helped to create a very warm and friendly atmosphere during the entire evening.

In retrospect, I sincerely feel the Korea Day function was a great success and accomplished all that we set out to do. First of all, it gave us an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Korean community to their American counterparts in ter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within the State of Washington and strenghts and problems. The Korean community is a relatively

new, but rapidly growing one--approximately 30,000 strong and represented in almost every profession. As an industrious, hard-working people willing to adjust to and learn about their new way of life, they are anxious to establish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the American counterpart. I feel this Korea Day celebration is the beginning of an important dialogue between the two communities which will build a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peoples in terms of their shared potential, values and needs.

Secondly, the evening's activities were important because we were able to express our thanks where it is due. We invited the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War veterans who fought in Korea between 1950 and 53 and publicly thanked them for their service and sacrifice in defending South Korea from the communist invasion. Indeed, their participation in the war defended and preserved freedom and democracy in Korea. Also, included on the guest list were the American couples who have adopted Korean orphans who needed a home and love. There is no greater humanitarian gesture than to offer a needy child, irrespective of race or color, the necessary provisions for a hopeful future. Hence, we publicly expressed our profound appreciation to all the American adoptive parents. We also invited special guests from various public, private, professional, educational, busines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here Korean people are employed and trained. In front of approximately seven hundred attending, we offered our appreciation for their employment opportunities, training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for just being our friends.

Finally, during the banquet, a Korean gentleman expressed to me "I am proud to be a Korean tonight." I too am very proud to be born a Korean and now to have become a Korean-American. The very foundation of my roots is in the Korean heritage. In order for a civilization to last 4,000 years, there must be a stability bordering on greatness. The family, despite modern criticisms, truly continues to be the center of a lasting society. Destroy the sanctity of the family and you destroy a civilization. The very essence of the Korean heritage is a strong family continuity. Hopefully our lives will exemplify that message and never let it fade as we pursue our lives here in the United States. To instill these values and their source within the younger generation is a worthy goal. Therefore, I cherish the Korean emphasis on family, respect for elders and concern for ethical and moral values. In America these Eastern values have blended with Western qualities of mobility, independence and a hard-working ethic to help Korean-Americans become broader and fuller individuals by a hopefully selective (choosing the best from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assimilation into American culture. As this process of assimilation occurs let us never forget the value of our Eastern ethic. Pride in our double heritage, as expressed by Korea Day, is important because America will be the permanent home for most of our children, and they will carry this blended heritage into the future to build peace and understanding in the world.

Paull Shinn  
President

## BULLETIN

### Children's Day: June 11

Bring your children to Discovery Park at 10:00 a.m., Saturday, June 11 for lots of fun--presents, treasure hunts, recreation, games, etc. Come even if it rains.

### Two Korean Language Schools Seek Coordination

Administrators of two Korean language schools met on April 2 at a luncheon to discuss ways to coordinate their efforts to educate children of Korean descent, especially the problems of teaching materials and information on teaching.

### The Olympic Preparation Committee Formed

At a meeting held April 22 at the Association office, the following members are elected to serve the committee.

Mr. Byung Sub Kim - Chair  
Dr. Kwang Hee Im - Vice Chair  
Mr. Hak Tok Yun - Vice Chair  
Dr. Paull Shinn - Vice Chair

### 2000 Pounds of Rice Donated

The Seattle Central Church donated 2000 pounds of rice to Korean Association to be delivered to the needy in June. If you know of someone who needs help, contact the Korean Association office.

### 1984 Scholarship

Chang Hei Lee Memorial Scholarship Fund has six scholarships--three \$500 and three \$300--available to talented students who are in need of financial assistance.

Application deadline: Nov. 11, 1983  
Award Announcement: Nov. 25, 1983  
Send request for application form to:

## NEWS

Chang Hei Lee Memorial Scholarship Fund  
2728 N.E. 100th Street  
Seattle, WA 98125

### Note from the Treasurer about Dues

When you pay your dues or make contributions, please note the following:

1. Write checks or money order. Cash is not accepted.
2. Indicate the item on your check. For example, indicate what your payment is for: Dues, or Contribution to the Association, construction of the Association building, or Korean Language School fund, etc.
3. The Association membership dues are \$10 per person. So it's \$20 for a couple. For each additional member over 18, add \$10.

### Announcement from A P K C

In order to teach our children about Korea and instill in them pride in their Korean heritage, a group of adoptive parents of Korean children is sponsoring a Korean Culture Camp, August 1-5, 10:00 AM - 3:00 PM, at the First Lutheran Church of Bothell. The camp is for children Kindergarten through Sixth grade. Fees will \$25 for the first child in a family, \$15 for the second, and \$12.50 for the third.

We sincerely invite participation by the Korean community, not only by the children attending camp but by adult volunteers. Any adult volunteering will receive discounted fees for their children and free babysitting for infants or preschool children. Camp curriculum will include Korean culture language, crafts, music, games, dancing, cooking, and Tae Kwon Do. We will need teachers and helpers for most categories. Donations of materials for camp will be gratefully accepted. We will be printing a resource sheet listing Korean businesses to be made available to the adoptive families.

If you wish more information, would like to volunteer, or would like to list a business on our resource sheet, please call Sandi Mehl, 481-5660. For registration information, write or call Anita Huntley, 14249 111th NE, Kirkland, WA 98033, 488-0187. The next planning meeting is at the home of Jeanie Beckham, 16244 NE 27th, Bellevue, 883-4824, on May 12, 7:30 PM. Please come.

**MOTHER/DAUGHTER DIALOGUE**

by Chungmi Kim.



Reproduced from Chungmi--Selected Poems by Chungmi Kim (Anaheim, California: Korean Pioneer Press, 1982) with the author's permission. This poem was performed on Poets In Profile, KCET, Los Angeles, California and appeared in KOREATOWN in July, 1980.

**DAUGHTER:** I see your face  
 Mother  
 smiling  
 with a shadow behind  
 in the sunset.

The days of your youth  
 in your eyes  
 silently  
 unravelling--

Born a woman  
 half a century sooner  
 you were a warrior  
 in disguise.

Your heart filled  
 with love and courage  
 you taught your children  
 such optimism  
 that life was indeed worth  
 living.

At seventy seven  
 now  
 you sit against the wall  
 your back bent  
 your body shrunk in half.

Silent in apathy  
 you do not cry  
 for joy or sorrow.  
 And you have no questions  
 about my homecoming.

Tell me  
 Mother  
 what has taken your soul  
 away  
 so cruelly?

**MOTHER:** Nothing matters.  
 Nothing--  
 in this life.

I am waiting  
 for my life to be taken  
 away.

**DAUGHTER:** Why, Mother?  
 Why?

**MOTHER:** A bride of seventeen--

I was married to a man of thirty  
 chosen by my grandmother.  
 The first, the only man.

He was proud as an eagle  
 with a temper like a thunder storm.

**DAUGHTER:** Did you love Father?

**MOTHER:** I bore him four sons  
 he was proud of.  
 I bore him five daughters  
 he was indifferent to.  
 Together we built  
 a nest of wealth and  
 nurtured our children  
 with words of wisdom.

I taught you to respect  
 your Father.

But nothing matters  
 any more.

**DAUGHTER:** What anguish do you remember  
 most  
 Mother?

**MOTHER:** Your brother went to the war  
 and never returned.

I never forget--

Help me, help me, Mother  
 he cried

if I go to the war now  
 I fear I'd never come back  
 alive.

He knew his destiny.

A box of ashes came home.  
 And the world around me was  
 shattered.

One month after his death  
 the day of liberation  
 came.  
 Just one month after...

**DAUGHTER:** In another war  
 you lost your daughter.  
 My sister.

Born a girl  
 in the year of the horse  
 she was the daughter  
 with a wild temper.

She sang in a voice  
 sharp as a knife  
 danced in the night  
 like the flame of a torch.

Her ambition grew  
 like grapes on the vine.  
 But then she was  
 in disgrace  
 for being a woman.  
 Another war broke.

And she flitted  
 from one illusion  
 to another.

One rainy day  
 she ironed her dress  
 with pretense  
 and drank the water  
 of sweet death.

A virgin--  
 dead.  
 At twenty one.

She was buried  
 in the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where the virgin soul was destined  
 to linger  
 eternally.

**MOTHER:** Mother wailed.

The pain and anguish  
 nailed hard

on her bosom  
 and rusted  
 in all the years of her life.  
 Now  
 in apathy--

I prayed God  
 I prayed Buddha  
 to take away my life  
 instead of my children.

God and Buddha  
 they left me  
 long ago  
 when the war broke.

But nothing matters.  
 Nothing...

**DAUGHTER:** It matters, Mother.  
 It matters that you are  
 my Mother.

Through you  
 I had a vision  
 of life  
 different from yours.

Through you  
 I learned the wisdom  
 to seek  
 for freedom.

You paved the way  
 for my journey  
 into the world  
 unknown.

Through you  
 I gained the courage  
 to survive.

It matters that I am  
 your daughter.

Mirror to mirror  
 through myself  
 I see you.  
 You see me.

Are you not happy that I came  
 to see you?

Show me a smile  
 however faint.  
 Open your heart  
 just one more time.

**MOTHER:** Tears, my tears...  
 Strange...  
 you bring my tears back.

Am I alive?

**DAUGHTER:** You are, Mother,  
 eternally....

주류청

한인회 항의에 대한 회신

Another Hearing on Liquor Control Board's Proposed Regulation Hearing September 7, 1983

In a reply to Paull Shinn's letter protest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regulation, requiring English language capability during operating hours, the Liquor Board

notified Shinn that the public hearing was rescheduled "to allow further input and to give the Korean people and others concerned in the matter time to correct the problems existing in their licensed premises." In other words, understand the laws of Washington about selling liquor to minors and do not sell it to them.

JOHN SPELLMAN  
Governor



STATE OF WASHINGTON  
LIQUOR CONTROL BOARD  
Olympia, Washington 98504

March 10, 1983

Mr. Paull H. Shin, President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24

Dear Mr. Shin:

This is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recent letter protesting the adoption of WAC 314-12-125, requiring English language capability during operating hours.

The proposed regulation was presented for the Board's consideration at a public hearing on February 23. It was rescheduled for hearing on September 7, 1983, to allow further input and to give the Korean people and others concerned in the matter time to correct the problems existing in their licensed premises.

The enforcement officers in our agency are more than willing to work with the Korean people to help them understand the laws of Washington regarding the sale of liquor to minors, so that violations of this type will not happen in the future.

The issues mentioned in your letter will be given every consideration by the Board at the hearing in September.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this matter.

Sincerely,

Robert D. Hannah  
Chairman

RDH:pr

cc: L. H. Pedersen  
Kazuo Watanabe  
Ray Hensel  
Bob Obenland

# Rebuttal To T.N.T.

REPORTS: "KOREAN INFLUENCE"

## Editor's Note

The Tacoma News Tribune, a leading newspaper in Tacoma, carried a series of five feature stories on "The Korean Influence" from March 20 to 24, 1983. To many Americans of Korean descent and Korean residents in the state of Washington the Tacoma News Tribune articles seemed to be prejudiced and the general picture of the Korean community knowingly misrepresented. On March 30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resident Dr. Paull Shinn, Mr. Jong Se Kwak, Vice President, Dr. Do Sung Uhm, Board Member, and Mr. Kun Hong Park, editor of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visited the Tacoma Tribune's editor-in-chief to protest against the TNT's biased presentation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 meantime, an ad hoc 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the Washington State residents of Korean descent decided to write the following open letter to TNT after a close reading of the articles.

## AN OPEN LETTER TO THE TACOMA NEWS TRIBUNE

From March 20 through 24, you featured a series of five articles on the subject of "the Korean Influence." The stated purpose of your series was two: (1) to examine the Korean Community, "why its members come here, why they stay, and problems they encounter as they try to hold onto a culture that sometimes clashes with their new environment: language barriers, marital strife and different standards of behavior and business practices," and (2) to "reflect the concerns and suspicions of federal, state and local officials who question the motives behind some GI-Korean marriage and equal concerns about some of the Korean-owned businesses springing up in Lakewood."

Your first objective, if honestly and objectively carried out, could have proved useful to the Korean community in Pierce County for its healthy growth. But you failed miserably in your first objective because your series focused exclusively on your second stated purpose--not just to "reflect," as you stated you would, but to exaggerate and sensationalize on the "concerns and suspicions" gathered from secret informants, "confidential reports," unidentified sources, and a few officials, whose allegations seem to be referring to a few specific cases of suspected individual wrongdoings--allegations and suspicions that are far from sufficient to be related to the Korean community as a whole. The way you magnified these allegations and suspicions held by persons who had themselves conceded to the difficulties of proving, and the way you implicated all members of the 15,000 Korean community, reveal a third purpose of your series which you did not state: a malicious intent to smear the image of the entire Korean community in Pierce County by associating the innocent majority through your rhetorical juggling with a few suspected individuals. In your series you have inflicted an unfathomable damage to the dignity and basic human rights of the Americans of Korean descent residing in Pierce County.

Your racial bias against Koreans, which guided the way you ordered and arranged your series, speaks out loudly from the layout of your front page of the Sunday issue that began the series. On a Sunday when newspapers are read most at homes, you printed your headline in red ink across five columns, and it read: "The Korean Influence." With the oddly erratic, fin-shaped lettering you chose for your red headline, you evoke an image of red herring. Below this quixotic headline, you placed a humongous collage, plastering together six billboards of Korean business to symbolize the Korean community, which your subtitle, "First in a five-part TNT series," is to metaphorically blow up like dynamite. Something like this is what you wanted to say but you knew very well it would put you out of newspaper business had you printed these words. So what you cannot print in words, you let the design and layout of your page convey visually but silently. Below that collage is your subhead "Flood of immigrants has created 'Koreatown.'" Then in a smaller subhead, you translate for the reader: "From a handful of GI brides, county's Korean population has grown to an estimated 15,000." In the second page of the Sunday issue you go on to stress, as if something gravely wrong has happened, that "trickle turned into a flood of immigrants" because "US now opens its doors to 30,000 Koreans each year." And you dramatize this with a bar graph to give an air of objective research to your racial overtones. And then you go on to explain how they got here: "Marriage can be a ticket to U.S." because "immigration laws favor spouses and open gates to their families."

We simply do not see why you have to make such a big fuss over this immigration trend. From the first migration in 1630, the pattern of American history has been just that--a trickle turning into a flood of immigrants. Those women whom you insist on calling "GI brides" are American citizens of Korean descent, and you are violating their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US Constitution whenever you present them in a derogatory context, calling them "GI brides." Your spirit of research led you to examine why they come here and why they stay. The answers you get should be the same ones you get when you examine why your parents and grandparents and great-grandparents came here and why they stayed here. If you get different answers, that's because you are a racist. If you do not like the immigration laws that favor spouses and open gates to their families, US Congress is the place for you to register your displeasure. Hounding on innocent Americans of Korean descent who are lawfully here will not change the laws.

The seemingly objective analysis of the immigration trend in your first article (we emphasize the word "seemingly" for it is anything but objective), prepares the reader for your second, more blatantly biased article entitled "'I do' can put a Korean in the U.S.--quickly." You argue that "For as little as \$3,000, a Korean who wants to avoid waiting four years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can get into the country by simply saying 'I do.'" You back this foolish generalization up by piling quotes upon quotes of equally foolish speculations like "most marriages are baloney," or, "there is a strong indication that a local Korean businessman is involved in a marriage-fraud ring." What did you accomplish with all this? As professional journalists you know as well as anyone else that it does not accomplish anything other than to imply that phony marriages brought the Korean population in Pierce County to 15,000, which is sheer nonsense.

Of the five articles drenched in bias and condescension, your third article appears to be the least biased while you are drawing out comments from Mrs. Warnick, Mrs. Wilson, and Mr. Eddie Yoon on the cultural and economic activities that point to a possible formation of "Koreatown" in the vicinity of Ponders. But here again, you are not genuinely interested in how hard they worked in putting up a library containing 3,600 translations of English books, in providing social services for the people in needs, in teaching English to those facing language problems. On the contrary, the way you exploited their comments reveals that you wish they had not contributed so much to providing a favorable cultural environment for Koreans.

You quote heavily Mrs. Warnick and Mrs. Wilson and Mr. Eddie Yoon to establish one thing as a transition to your last two articles in which you move in for the final blow, that is, the Koreans are flocking together in Ponders because it provides the favorable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 for a "Koreatown." You could not leave untainted these vigorous cultur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a growing community. Thus, toward the end of the third article you had to stick in some suspicions irrelevant to the general thrust of the article. So you say that "Casual record-keeping seems to be a problem with some Korean businesses. Liquor board auditors said in 1981 they examined business records of another Korean restaurant and found them in chaos." We doubt very much if Mrs. Warnick and Mrs. Wilson are happy about the context into which you put their sincere comments. Their cultural programs, English classes and libraries become, in the context you put them, a seedbed of crime because they, according to your logic, attract Koreans who would build a Koreatown.

In the fourth article of yours, you narrow your so-called analysis to "culture shock" in order to claim that "a sampling of 74 GI-Korean divorce cases filed in Pierce County in the past two years shows that most of the marriages that failed didn't last beyond four years." With this and the Coltharps' marriage that failed, you create a prophetic air to your headline for the article "A marriage may crumble from culture shock." 74 couples divorced, and the Coltharps' marriage broke down, fortunately for you and tragically for them. It follows, therefore, according to your biased view, all "GI-Korean" marriages are doomed to break down. But 74 divorces out of how many? You did not say. How does the divorce rate of Caucasian couples in America compare with that of the American couples whom you consistently choose to call "GI-Korean" couples? If this is too big a question for you to answer, how does the divorce rate among your staff compare to that of your "GI-Korean" couples?

The issue is not so much your incompetency in statistical analysis as it is your malicious intent to misrepresent the majority of the Korean community. The English word "a" is singular in concept but has a strange power to refer to an indefinite number, and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indefinite article. And you exploit that to the hilt to create an impression that all "GI-Korean" marriages are to ultimately break down. In your headline that ran across the full page, you wrote "A marriage may crumble from cultural shock." "A marriage" in your heading also refers, through the power of the indefinite article, to an indefinite number of other marriages. Through this method, you generalize, with a desire verging on a sadistic obsession, that the marriages between Americans and Koreans will fall apart. As a way of leading up to this irrational

oversimplification, you summarized what "INS officials" told you in the previous article: "Marriages may be made in heaven, but some GI-Korean weddings likely are arranged in a whorehouse in Seoul or Pusan." So you are saying that marriages between caucasians take place in heaven while your "GI-Korean" marriages take place in a whorehouse. If this is not racial discrimination, we do not know what is. "Hold on," you might object, "we did not say that. We have it on good authority." But it is you who summed it and drummed it up the way you did in your paper. Such an irresponsible statement reflects your editorial policy, which spawns unfounded hatred against Koreans, and tramples on the human rights of Americans of Korean descent.

Throughout the first four articles, you have prepared the historical, cultural, economic ground upon which to build your key point in your final article: "Some Koreans till a fertile field here--crime." Just as your periodic sentence boils down all the bad things about the Korean community you have sensationalized thus far to the single issue of crime, your articles move from immigration trend to cultural shocks to business corruption, to moral corruption, and finally to crime. And by crime, you meant an organized crime. Everything, including the highly commendable social contributions of Mrs. Warnick and Mrs. Wilson, is sucked into the contextual movement toward your bloated emphasis on criminal activities. You share the suspicions of the people who simply hate Koreans without any verifiable evidence. What the law enforcement officials could not prove with evidence and could only suspect, you sensationalized by drumming up gossip.

Throughout your articles, you repeatedly committed a logical fallacy which smacks of a childish pattern finding, of deducing a generalization about the Korean community as whole from one or two foggy examples of particular cases. Just to illustrate your style, imagine someone making a foolish statement like the following:

Americans in the Pierce County do not seem to be limiting their illegal operations to prostitution. There is evidence some Americans are involved in loansharking, bribery, gambling, extortion and other crimes associated with Marsian-style gangsters.

Any fair-minded person would object to this irresponsible way of generalizing about all Americans in Pierce County simply by juxtaposing them to a certain unqualified number (some) of Americans involved in the hypothetical Marsian-style criminal activities. Replace "Americans" with "Koreans" in this passage, and we have the sentences from your concluding article. The fallacy of this kind of writing abounds in your articles. Why? Simply because you wanted to create an erroneous impression that all Koreans are engaged in some organized fashion in the criminal activities.

At other times, you flooded your sentences with the word "Korean" in order to create a false alarm and evoke a fear in the reader that "Koreans are invading us." Let's look at the sentences in which you are summarizing your "two reliable informants:"

From 1972 through 1980 Korean-run saunas, many of which are mere covers for whorehouses, were making weekly contributions to a non-Korean man who reportedly told the sauna operators that he was using some of the money to bribe law enforcement officials.

Three judges from outside the Pierce County judicial system and a former state legislator were said to have enjoyed the sexual pleasures of the saunas, according to two non-Korean madams and another source. (Italics added)

Who is your "non-Korean man"? Who are your "non-Korean madams"? What happened to your odious attempt to make clear distinctions between the "white" folks and Koreans? According to your mentality revealed in this passage, everything bad is done by Koreans. If any other nationals are involved, well, call them non-Koreans. Was that "non-Korean man" who was bribing law enforcement officials a white man, by any chance?

You seem to have specific information on "three judges from outside the Pierce County judicial system and a former legislator," "a non-Korean man," and "two non-Korean madams." We would like to know what you do to account for their illegal activities besides using them the way you did in your article to smudge the image of the Americans of Korean descent in Pierce County.

The five articles you ran in your series from March 20 through 24 remind us of the witch-hunt that had occasionally marred the history of America. They remind of us the horrendous scapegoating, which had sent the innocent Americans of Japanese descent to the concentration camp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e suggest that you admit the errors you committed in your article. You may choose any form you like, but admit you must.

Ad Hoc Committee on Human Rights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 \*

The Ad Hoc Committee on Human Rights of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recommends the following to the Community Leaders and Concerned Members:

Whereas the committee members have not the slightest intention of defending any criminal activities, whether committed individually or in any organized fashion, we found the Tacoma News Tribune articles extremely biased against the Korean community in Pierce County in particular and against Koreans in general. If the negative image of the Korean community painted by the Tacoma News Tribune in its series of five articles is not corrected, its impact upon the future of the Korean community can be devastating. Therefore, we recommend the following actions to be considered.

1. Continued letter-writing campaign--We urge all concerned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to continue writing letters of protests to the Tacoma News Tribune and to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legislators.

2. Joint-action with other Asian Community Leaders--We recommend that the community leaders of Tacoma and Seattle consult the leaders of Japanese, Chinese, and Filipino communities for possible joint action against the Tacoma News Tribune's biased articles.

3. Peaceful Demonstrations at Tacoma News Tribune--We recommend that if the Tacoma News Tribune refuses to admit its errors of biased representation of the majority of innocent Koreans in the State of Washington, the community leaders should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organizing peaceful demonstrations in front of TNT office building.

4. Legal Action against Tacoma News Tribune--When nothing works out, the community leaders should seek legal advice for the possibility of suing the Tacoma News Tribune for the violation of basic human rights of Koreans in the State of Washington.

LETTERS TO THE EDITOR

Dear Editor:

The introduction of an English section in your publication is a great help to us Korean-Americans who don't read Korean in being informed about the Korean community, but one major language barrier still exists in your publication. Most of your advertisements are still written in Korean.

This is a major stumbling block for Korean Americans who don't read the language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community by patronizing Korean businesses. Although in many of the advertisements the name of the business, the address, and phone numbers are given in English, all other information is a mystery to those of us who don't read Korean. More often than not, the advertisements is totally incomprehensible.

I would like to be able to take some of my business to Korean businesses, but that is practical impossibility if I don't even know if these businesses exist or what services they offer.

Again, I applaud the introduction of an English section to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but now your advertisements must follow suit.

Sincerely yours,

Dennis K. Yu

Dear Dennis,

Thank you for your nice comment on our publication. We are very glad to hear that its English section is helping our young generation who do not read Korean in understanding what is happening in the community. I share with you your concern with the still insurmountable language barrier you found in the various advertisements which our publication carries. Perhaps the sponsors of our ads, who mostly belong to the older generation did not give much thoughts to the idea that they should also attract the attention of their own young folks who are eager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by patronizing their businesses. I am sure that you are that much ahead of the time in thinking of how to open our community to our future generation. Many considerate old folks will certainly applaud your perception and ingenuity.

I will of course try to inform our sponsors of your concern and will see that they add as many English words as possible in their ads. I will also remind them that our young people may even have quite a big buying potential.

Again, thank you for your letter. It gave a great boost to all of us working for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Sincerely yours,

Kun Park  
Editor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친애하는 한인상공인 여러분!

워싱턴주내에 있는 700여개의 한인사업체들은 이제 개별적인 노력에서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확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본 상공회의소는 날로 커가는 워싱턴주내 한인들의 비지내스 활동을 증진시키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상담실운영, 단체건강보험교섭, 업종별 분과위원회구성, 사업정보 알선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한인상공인 제위께서는 각자의 사업발전을 위하여 또한 이지역 교포사회의 경제적기반을 구축하는데 참여하여 일익을 담당한다는 뜻에서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시어 본 상공회의소의 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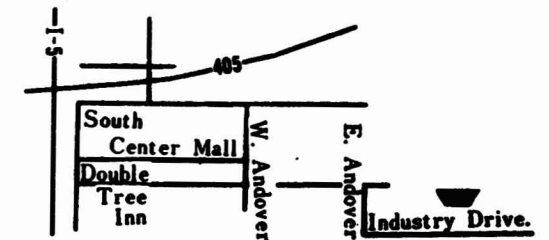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박헌주  
이사장 노순열

◎ 상공 회의소의 회원이 되려면?

본 회의소 회칙 제6조에 따라 "워싱턴주내에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상공 업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경영 책임자"는 누구나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비 \$20을 첨부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3개월에 \$10의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본 상공회의소를 지원하고 본 회의소가 추진하는 사업의 혜택을 얻을수 있도록 모든 상공인들께서 다함께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원서는 본회의소 사무실에 요청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서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 주소 및 위치도

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Washington State  
584 Industry Drive  
Seattle, WA 98188  
Tel: (206)575-1320



美國 50個州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결에 있습니다



南北美 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로고 빠른  
한국일보

시애틀

525\*9222

타코마

588\*2500

중앙  
식품

762-5620

9641 15TH AVE S.W.

아침 9:00 ~ 저녁 9:00

- 한국, 일본식품
- 신선한 생선 및고기류
- 싱싱한 야채류
- 선물, 일제그릇



『 편집 후기 』

- ◎ 지난호의 배이상으로 불어난 원고와 한인회 활동 기사를 처리하다 보니 회보편집이 몇급절 힘들고 출판도 늦어졌다. 회보를 기다리는 교민들의 이해를 빈다.
- ◎ 이번호에도 무거운 많은 글들을 실게되어 고달픈 가운데도 편집의 보람을 느낀다. 오계희 박사의 한인학교에 관한 논단은 우리의 2세교육에 대한 관념을 정돈시켜주고 광상영씨의 골동품에 대한 글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상식을 알려주는 것 같다. Paul Pick 씨의 젊은이들을 위한 글은 한국적 정서를 가득히 담겨있는듯하다. 이외 필자모두에게 감사드린다.
- ◎ 타코마 뉴스 트리분지의 “한국인 영향” 기사에 대한 반박문 (영문) 은 치밀하고도 예리하게 일부 미국언론인들이 가지는 한인에 대한 편견을 분석하는 차원높은 글이기에 전문을 실었다. 미국 사회에 읽혀져 한인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빈다.
- ◎ 지난 회보에 대한 조언과 충고를 보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교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투고가 있기를 바란다. (편집부)

한인회보 1983년 제 3호  
 발행인: 신 호 범  
 편집인: 박 건 흥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2611-125th St. N.E.  
 SEATTLE, WA 98125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TEL: (206) 362-4500

한인회보

표지의 『한인회보』 제자:

한인사회를 위하여 헌신, 사랑, 겸양,  
 숭선수범으로 귀감이 되었던 고 이창희  
 초대 한인회장의 생존시 휘호

성형수술 전문의

DAVID A. EKLAND, M.D.

CERTIFIED - AMERICAN BOARD  
 OF  
 PLASTIC SURGERY

쌍카풀 수술  
 유방 확대  
 각종 교정 성형수술

126 AUBURN AVE,  
 AUBURN, WA 98002 **939-1440**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월, 화, 목, 토  
 (9시~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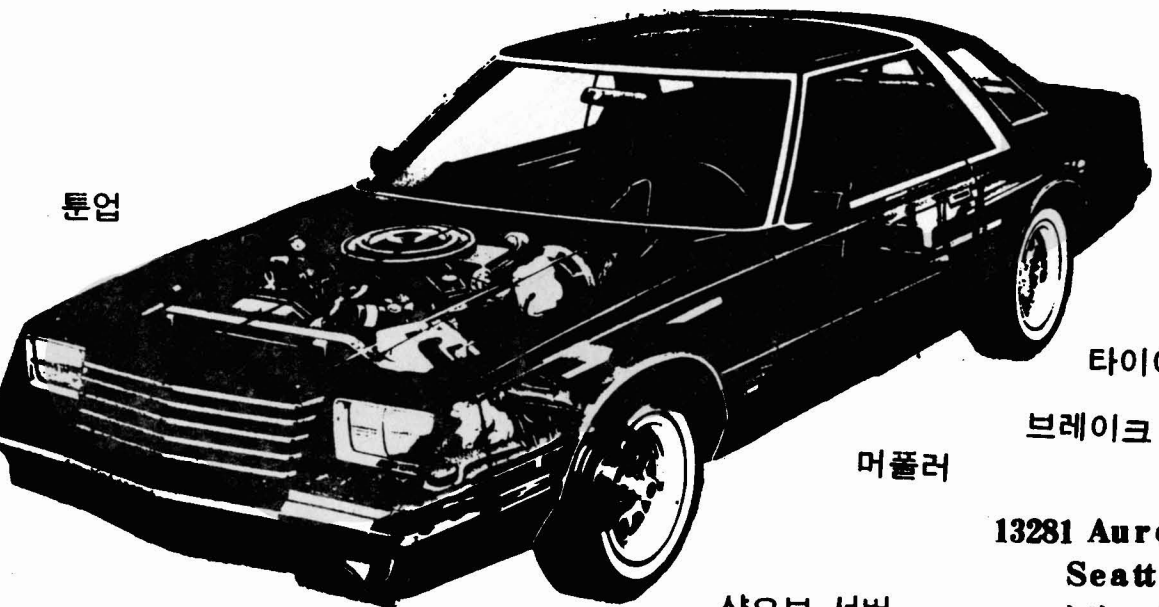
**367-5570**  
**776-8512**

페더럴웨이  
 수, 금(10시~7시)

**838-3180** 시애틀  
**927-4996** 타코마

\*\*\*\*\*  
 이 규 영 계 리 사  
 귀중한 재산을  
 소중히 정리해드립니다.  
 ※ 컴퓨터로 장부정리 ※ 퇴직 연금 상담  
 ※ 일반 인컴 텍스 ※ 세무상담  
 ※ 중소 기업 장부정리 ※ 공증업무  
 ※ 기밀 절대보장  
**623-4181-3**  
 2809 4th Ave. Seattle  
 \*\*\*\*\*

\*\*\*\*\*  
**LEE'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 정비센터**  
 \*\*\*\*\*



타이어  
 브레이크  
 머플러  
 삭오브 서버  
 프론트 엔드얼라인 먼트    트랜스 및송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전화 362 ~ 4449

**모두 완벽하게 고칩니다**

# 榮味亭



- 최신식 완전 자동냉면기계 설비
- 대 연회장 완비
- 넓은 주차장 시설
- 나이트 클럽(김용세와 그의악단)

※ 가족의식 ※ 친목회식 ※ 귀한손님접대 ※ 축하연등  
모임에 따라

10 명에서 150 명 400 명 까지  
한자리에 모실수 있습니다

## YOUNG ME RESTAURANT 623-3112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HAH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1146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